

cover artist

Moon Beom

문범



“나에게 현대 미술이란 깊은 숲속에서 자라나는 식물의 자유롭고 은밀한 생태나 끊임없는 관찰과 계산에 의해 세계의 증거물을 잡아내려는 노력과 연결된 과학으로 보여지곤 했다. 저 알 수 없는 사물을 둘러싼 엄청난 자유와 규칙 속에서 지금의 미술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어떠한 것들일까.”

서울대 학부 시절 동양화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공부한 문범은 미술 이론에 관한 번역서를 내고 평론을 쓰면서 현대 미술 이론을 연구했다. 그리고 이를 예술 작업으로 옮기며 평면, 설치, 비디오,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었다. 그의 작업은 고정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실험적이고 때로는 대담하나 고도로 절제된 상태를 유지한다. 자동차 도료를 분무기로 뿌려 화면을 채우고, 유화 물감을 손으로 문질러 신비로운 풍경을 완성하는 문범. 그는 쉽 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손을 뻗 삼아 작품을 만들고, 뚜렷한 철학을 지닌 채 현재를 마주하는 고요하고도 치열한 예술가다.



아주 좋은 날

AJU BIENNIAL MAGAZINE
2018 SUMMER • VOLUME 51



평면과 밀착된 손가락의 회화

문범은 오일스틱을 손가락으로 퍼 발라 여러 차례 문질러 번진 흔적으로 작품을 완성한다. 그의 회화는 동양의 산수를 연상시키며, 서양 추상표현주의의 느낌을 자아낸다. 물감을 손가락에 바르고 문지른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 농담의 효과 때문이다. 1982년부터 국내외에서 20여 회 개인전을 열며 독자적 회화 세계를 구축한 문범은 회화의 고정관념과 관습에 대한 뚜렷한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이지적이면서도 몽환적인 작업을 펼친다. 자연과 문명을 동시에 품은 작품이 여름을 부른다.

Secret Garden #261_Light Gray, Sap Green, Acrylics, Oilstick on Panel, 91×182×7cm, 2011

앞표지. Slow Same #5005, Acrylics, Oilstick on Panel, Vanish, 210×183×8cm, 2002
뒷표지. Secret Garden #262_White, Violet, Acrylics, Oilstick on Panel, 91×182×7cm, 2011

기술과 감성이 만난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다

무더운 여름날에는 천천히 걷고, 폭 쉬고, 때로는 완전히 멈추는 일도 빨리 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어 하루가 버겁게 느껴질 때면 숲속에 흐르는 바람 한 자락, 짙어지는 바다의 색채를 만나 감성의 여백을 넓힐 필요가 있지요.

이번호 「아주좋은날」에는 거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문명 속에서 느리고 정겨운 아날로그 감성으로 틈새를 채우며 조화로운 내일을 도모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MP3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느긋하게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겨서 일상을 잠시 멈춰 보는 것도 아주 근사하지 않을까요? 적당한 휴식은 수많은 자극에 반응하느라 지친 우리의 집중력을 다시 날카롭게 버리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샘솟게 만들 겁니다. 이처럼 한가롭게 쉬어 가는 풍경 속에서 「아주좋은날」이 푸르른 쉼표 하나 더하겠습니.

CONTENTS

Section 1. Art & Life	gallery 기술과 감성이 만난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다	02
	opinion 디지로그 시대, 책은 독자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10
	insight 용기와 상상력, 인식의 지평을 넓히다	12
	people 정서를 품은 음식, 여운이 되는 한식 유현수 셰프	16
	curation 1 한 땀 한 땀 되살아나는 책의 가치, 예술제본책	20
Section 2. Now & Moment	culture and the city 두 가지 다른 표정을 지닌 도시, 인천을 거닐다	22
	special free time 보기에도 추기에도 아주 좋은 발레	28
	favorite things 나전에 붙여넣은 전통의 숨결, 나전장 이형만의 여가식미餘暇食美	32
	scene of object May the Force Be With You, 그리고 R2-D2가 함께하기를! 〈스타워즈〉시리즈 속 R2-D2	36
	curation 2 살아 움직이는 책 속 세상, 3D 증강현실책	38
Section 3. Art & Life	hotel stay 문화적 영감, 창조적 에너지 RYSE Autograph Collection	40
	aju spirit 몰입의 힘, 딥 워크Deep Work	44
	aju news 아주 소식을 전합니다	48
	reader's view 독자 후기와 아주의 선물	52

cover story



Slow Same #5005
Acrylics, Oilstick on Panel, Vanish, 210x183x8cm, 2002

“쉽게 이해되는 예술도 필요하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이해할 수 있는 예술도 있습니다. 저는 남들이 전혀 시도하지 못한 현대 미술을 하고 싶습니다.” 문범은 자동차 도료를 재료로 사용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산업의 색채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화폭에 오일을 문지른 흔적으로 환상적인 추상화를 완성하기도 했지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를 통해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그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예술, 더 가까이

Art & Life

“예술은 당신이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앤디 워홀 Andy Warhol

생기 없이 늘어져 더위에 지쳐 가는 여름, 예술 속으로 여행을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요? 커다란 섬 자체가 무대가 된 우롤Oerol 페스티벌을 보면 자연의 숭고함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는 3차원 하늘을 감상하면 상상의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소금을 뿌린 듯 하얀 메밀꽃밭을 유유히 흘러가는 뗏목을 따라, 천천히 디지털 작품 속으로 피서를 떠날 수도 있겠지요. 그뿐인가요. 환상적인 이미지를 독특하게 그려 낸 팀 버턴 Tim Burton과 선구적으로 메가폰을 들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감독 박남옥을 비교하며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예술제본에서 3D 증강현실로 진화한 책들이 풀어놓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야기를 들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특별한 휴식을 취해 보세요.



TSUTAYA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서점, 츠타야

“하드보일드 영화의 팬이라면 레이먼드 챌들러Raymond Chandler의 소설도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좋아하는 차분한 느낌의 재즈를 듣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하나의 상점에서 그것들을 모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츠타야의 CEO 마스다 무네아키Masuda Muneaki의 말이다.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면 하루 만에 받아 볼 수 있는 시대, 츠타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나아가며 서점의 미래를 보여 주었다. 초기에는 음반, DVD를 대여하고 책을 판매하던 단순한 플랫폼이었

다. 이를 기반으로 문구와 가전제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제안하는 형태로 변모하더니 스타벅스, 패밀리마트와 융합한 매장을 선보이며 편리하고 친근한 서점으로 변신을 거듭했다.

츠타야 열풍의 핵심은 고객에게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을 판매한다는 것. 가령 재즈나 클래식, 록 밴드 음악을 연대, 스타일별로 구분해 고객이 원하는 음반을 손쉽게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서적 분야는 감성을 앞세워 고객을 맞이한다. 미니멀 라이프, 슬로푸드와 같은 세분

화된 라이프스타일에서 사랑, 죽음 등 철학적 주제까지 골고루 다루며 고객이 그 주제가 지닌 감성을 책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뿐인가. 전문적인 제안을 하는 안내인, 컨시어지도 있다. 여행 잡지 기자였던 이가 여행 컨시어지를, 재즈바를 운영했던 대표가 재즈 컨시어지를 담당하는 식이다. 사람, 책, 공간이 제공하는 따뜻한 감성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와의 조화를 통해 한 발씩 앞서가는 츠타야 덕분에 우리는 자신 있게 책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



OEROL
생태와 예술의 만남, 센스 오브 플레이스

바덴해Wadden Sea는 세계에서 가장 넓고 잘 보존된 조간대 생태계로 유명하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에 걸쳐 있으며 길이가 약 500km에 달한다. 1978년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세 나라의 정부는 만조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바깥에 드러나는 조간대 생태계 환경을 살리기 위해 모였다. 바덴해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공동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네덜란드가 바덴해의 가치를 알리고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행사, 우롤 페스티벌도 그중 하나다. 매년 6월 네덜란드 바덴해에 위

치한 테르스헬링섬에서 열리는 우롤 페스티벌의 ‘우롤Oerol’은 테르스헬링섬의 방언으로 ‘도처에’라는 뜻이다. 그 이름처럼 섬 곳곳에서 축제가 벌어진다. 내용은 콘서트, DJ 파티부터 신진 예술가와 자연 보호가가 함께 하는 워크숍까지 다양하다.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테르스헬링섬 자체가 무대가 된다는 것. 모래 언덕, 해변, 숲, 헛간 그리고 길거리 등이 예술가들의 무대로 변신한다. 바덴해를 더 눈에 띄게, 더 아름답게 조명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우롤 페스티벌의 총괄 기획자인 요프 뮐더르 Joop

Mulder의 제안으로 시작한 ‘센스 오브 플레이스Sense of Place’다. 테르스헬링섬이 바덴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길 꿈꾸던 그는 그 취지에 공감한 50여 개의 기관, 주민과 함께 바덴해 연안을 따라 거대하고 혁신적인 예술 작품을 설치했다.
센스 오브 플레이스는 첨단화된 시대, 지구를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다. 사라져 가는 자연을 예술로 지켜 내는 이들의 이야기 역시 오랜 시간 기억해야 할 가치가 아닐까?



PYEONGCHANG

가장 한국답고 가장 세계적인, 아리랑 : 시간의 강

2018 평창 올림픽 개회식은 '행동하는 평화Peace in Motion'를 슬로건으로 결고, 강원도에 사는 다섯 아이가 시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의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그중에서도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과 역사의 흐름을 담은 영상 작품 <아리랑 : 시간의 강>은 이번 개회식의 클라이맥스로 꼽히며 전 세계인의 박수를 받았다. 작품 속 계절은 시시각각 변화하여 우리 사계의 감성을 전하는 동시에 자연을 인생의 흐름에 비유하여 보편적으로 표현하였고, 마지막은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한 장면을 닮은 하얀 메밀꽃



밭으로 장식해 개최지인 강원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영상 속 메밀꽃밭이 무대로 옮겨져 바닥에 그대로 형상화되는 순간, 정선 출신 소리꾼 김남기가 <정선 아리랑>을 구슬프고도 묵직한 울림으로 뽑아냈고 다섯 아이는 뗏목을 타고 드넓게 펼쳐진 메밀꽃밭을 건넜다. 뗏목이 지나온 길로 시간의 강이 흐르고, 한국의 굴곡진 역사를 상징하듯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메밀꽃은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하얀 꽃송이는 증강현실 기술에 힘입어 희망과 꿈을 상징하는 반딧불이가 되어 날아오르며 은하수로 반짝였

다. 프로젝트 매핑을 담당한 목진요 감독은 “바람에 눕고, 비를 맞아 꺾이고, 짓밟혀 이지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메밀꽃 송이송이가 한국인을 상징한다. 전쟁을 겪은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 내느라 희생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를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시련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은 한국인의 끈기를 표현한 <아리랑 : 시간의 강>. 우리네 정신을 세련되고도 절제된 형식으로 그려 낸 공연을 눈으로 읽어 내려가며 평화로운 미래를 상상해 본다.



BEYOND

손에 잡힐 듯 생생한 3D 구름 벽화, 비온드

공항은 떠남과 만남의 장소이자 여행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이런 특징을 포착해 이동을 위한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여행자와 예술가에게 특별한 영감을 제공하는 곳으로 거듭난 공항이 있다. 바로 네덜란드 스히폴 공항Amsterdam Airport Schiphol이다. 이곳에는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을 고스란히 재현한 벽화 <비온드Beyond>가 설치되어 있다. <비온드>는 공항 제3터미널에 있는 작품으로, 언뜻 보면 길이 110m에 이르는 거대한 LED 화면 같지만 이를 단순히 하늘을 담은 이미지라고 생각



하면 오산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렌티큘러 렌즈를 이용한 작품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는 인터랙티브 예술이다. 벽화 앞을 지나 는 사람들은 자신의 움직임에 맞춰서 흐르고 멈추는 구름을 느낀다. <비온드>를 제작한 스튜디오 로세하르데Studio Roosegaarde는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3차원의 하늘을 보면서 다시 꿈을 꾸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찾기 원한다는 기획 의도를 생생하게 구현했다. 디자인과 엔지니어로 구성된 스튜디오 로세하르데는 이처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미래의 풍경’을 창조한다. 사람과 공간의 관계를 되짚는 것에서 출발하며 주로 강변이나 도로, 광장 등에 작품을 설치한다. 시민들은 보행자에서 관람객으로, 나아가 참여자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작업물로는 <위터 라이트>(홍수의 위험성을 알리는 가상 홍수), <스모그 프리타워>(미세먼지를 보석 반지로 바꾸는 실외 공기 청정기) 등이 있다. 첨단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작품을 감상하며 미래의 풍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지금 이 시대의 예술 앞에서 누구나 가슴이 두근거릴 것이다.

디지로그 시대, 책은 독자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책은 단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다. 차라리 책은 타자의 체험과 사유 방식을 자기화함으로써 인간을 변화시키는 수단에 가깝다. 디지털 문명이 심화될수록 책의 이러한 대체 불가능한 속성도 분명해지는 중이다. 인생을 바꾸려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삶이 한순간에 달라지는 일은 허다하다. 책을 읽으려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디지털 문명은 결코 책을 없앨 수 없을 것이다.

글 장은수(출판평론가)

Digi log

정보 교환의 역사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큰 특징은 섬세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네안데르탈인을 비롯한 다른 인류는 물론이고 동물 역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지만, 호모사피엔스의 세계처럼 정교한 언어 시스템이 발달하지는 못했다. 약 5만 년 전 농업 혁명과 맞물려서 시작한 언어 혁명은 인류를 '지구의 지배자'로 만든 결정적 분기점에 해당한다. 이후로 인류는 타고난 유전자가 아니라 문화적 유전자의 힘을 더 많이 활용하며 살아왔다. 이 사실은 무척 중요하다. 언어의 혁신, 즉 정보 교환 시스템의 발전이야말로 인류 문명의 진정한 엔진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말하기, 쓰기, 인쇄, 텔레비전, 인터넷 등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생겨날 때마다 문명의 대혁신이 일어났다.

유럽에서는 15세기 중엽의 활판 인쇄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촉진했고 과학 혁명의 근원이 되었다. 인류는 문자를 독점한 소수의 권위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주변에 널린 텍스트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체인 개인으로 진화했다. 이것이 근대다. 텔레비전, 라디오 등 미디어는 정보의 대량소비 현상을 일반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라는 집합적 정보 수용자, 즉 대중을 만들어 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라는 현상을 이해하지 않고는 20세기의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현상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현대다.

개인이 곧 미디어가 된 세상

인터넷이 등장한 것은 약 50년 전, 인류의 삶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는 30년 정도다. 언어의 변화는 모든 것을 바꾼다. 만인과 만인, 만물과 만물, 만인과 만물이 연결되는 '초연결'과 알파고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어서는 초지능에 기반을 둔 인터넷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인류 전체가 정보의 발신자이자 수신자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한편으로 인터넷은 '손안의 책'이라는 인쇄 혁명의 귀결이다. 손안의 책이란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태로든, 필요한 정보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를 상징한다. 아직은 더욱더 큰 개방성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누구나 네트워크의 한 그물코로서 미디어 생산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발신하는 정보를 서로 접속된 세계 Connected World로 퍼뜨릴 수 있다. 이제 개인이 곧 미디어다. 이것은 탈현대다.

책과 출판을 새롭게 정의하다

이러한 세계는 인쇄 혁명의 적자였던 책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뒤흔든다. '무엇이 책이고, 어디까지가 출판인가'를 묻는 것이 오늘날 출판인들의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저자와 독자, 쓰기와 읽기를 연결하는 책의 인터페이스를 혁신함으로써 책과 출판을 다시 정의하려는 시도가 아주 꾸준하다. 그 방향은 현재까지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융합화. 책에 담긴 콘텐츠와 정보 기술이 서로 만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책이 출현하는 중이다. 종이책 출간 후 이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서 출판하거나 종이책 없이 아예 전자책 형태로만 출판하는 일은 이미 흔하다. 가볍고 짧은 콘텐츠를 선호하는 모바일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 연재 형태로 출판하는 일도 일상화되었다. 디지털 기기의 보편적 잠재성을 활용하는 책이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오디오 기능과 결합한 오디오책, 비디오 기능과 연계한 비디오책,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증강현실책, 가상현실 기능을 이용한 가상현실책과 독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때그때 콘텐츠를 변형하거나 조합해서 제공하는 맞춤형 출판 등이 확산되고 있다.

둘째, 복합화. 책은 더 이상 외동이가 아니다. 책의 콘텐츠는 형식과 내용을 공유하는 형제자매를 거느린다. 노트, 다이어리, 책 커버, 연필이나 볼펜 등 책의 구절이나 이미지 등을 활용한 굿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난감과 결합한 놀이책,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운드책, 색칠이 가능한 컬러링책 등 걸다리책이 꾸준히 출현했고 새로운 장르로 자리 잡았다. 영화, 게임, 드라마, 음반, 다큐멘터리, 만화 등으로 책 콘텐츠가 2차가공되는 전통적 콘텐츠 확장 전략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트랜스미디어 전략이 일반적이다. 특정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하나의 기나긴 스토리를 개발한 후 다양한 장르에 걸쳐 그 이야기를 서로 겹치지 않는 방식으로 나누어 표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슈퍼히어로들이 각각 독자적 스토리를 가지면서 때로는 함께 협력하기도 하는 마블의 콘텐츠 전략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셋째, 미학화. 책의 물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화면과 종이는 완전히 다르고 인쇄는 인간의 고유한 감성을 창출한다. 따라서 인간과 책 사이의 정동적 관계는 한순간에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종이를 개발하고 타이포그래피를 개선하며 사후 가공 등을 통해 책에 고유한 물성을 부여함으로써 책의 아날로그적 속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는 중이다.

용기와 상상력, 인식의 지평을 넓히다



국내 최초로 메가폰을 든 여성,
박남옥

남성 캐릭터들이 무리 지어 등장하는 영화가 쏟아져 나오던 시기에 여성 캐릭터가 활약할 기회는 흔치 않았다. 감독 역시 마찬가지다. 감독이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이슈가 될 만큼 여성 감독의 작품이 스크린에 걸리는 일은 드물었다.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견고한 벽을 부수고자 했던 감독이 있다. 바로 한국 최초의 여성 감독이라는 발자국을 새긴 박남옥이다. 그녀는 한 손에는 카메라를, 한 손에는 기저귀 가방을 들고 “레디 고!”를 외치며 촬영장을 누비곤 했다. 치맛단이 해질 때까지 녹음실 계단을 오르내리며 영화 제작에 힘썼다. 1997년 제1회 서울여성영화제가 <미망인>(1955)을 상영하며 그녀의 존재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 2008년에는 여성 영화인에게 수여하는 ‘박남옥상’이 제정되기도 했다.

영화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현실 풍경을 재구성하는 예술 장르다. 영화를 창작하는 감독들은 자신만의 개성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영상 속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시대의 그늘이라 여겨지던 전쟁미망인의 삶을 영화로 조명한 박남옥과 신비로운 이야기와 몽환적 캐릭터를 창작한 팀 버턴Tim Burton 또한 그렇다. 두 감독이 각각 용기와 상상력을 기반으로 구축한 세상의 민낯을 들여다보며 인식의 지평을 한 뼘 더 넓혀 보자.

글 송경원(영화평론가) 일러스트 민지홍



기묘하고도 친숙한 상상,
팀 버턴

‘고정관념을 뒤집는다’라는 면에서 꼭 언급해야 할 감독 중 하나가 바로 팀 버턴Tim Burton이다. 그는 어떤 장르, 어떤 이야기를 가져온다 해도 끝내 ‘팀 버턴스러운’ 결과물을 뽑아내는 독특한 개성을 자랑하는 창작자다. 이름이 곧 하나의 수식어가 될 수 있을 만큼 팀 버턴의 스타일은 독보적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규칙은 있다. 우선 그의 상상력은 이방인, 소외된 사람, 밀려난 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출발한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환상의 세계, 비유하자면 윈더랜드로 모험을 떠나는 ‘피터팬’이 아니다. 차라리 현실을 뚜렷이 응시하고 슬픔 속에서도 환상의 그림자를 발견해 내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가깝다. 팀 버턴의 스타일을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다크 판타지로 요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견고한 벽을 깨고 주체적인 삶을 증명하다

1955년 <미망인>의 감독으로 데뷔한 박남옥의 일생은 그야말로 개척의 기록이라 할 만하다. 1923년 경상북도 경산에서 태어난 그녀는 경북여고 시절부터 영화인의 꿈을 키웠다. 전국체전 여자 포환던지기 종목에 출전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박남옥을 단숨에 매료시킨 영화는 베를린 올림픽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올림픽아>(1938)였다. 여성 감독 레니 리펜슈탈(Leni Riefenstahl)의 작품을 보고 영화에 대한 꿈을 키웠다는 건 실로 운명처럼 느껴진다. 이후 <대구매일신문> 기자로 일하며 영화평을 쓰던 박남옥은 윤용규 감독의 소개로 조선영화사 촬영소에서 근무하며 처음 영화계에 발을 디딘다. 그녀는 1947년 신경균 감독이 연출한 <새로운 맹세>의 스크립터로 현장에 뛰어들었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국방부 촬영대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그리고 드디어 1953년 극작가 이보라와 결혼한 박남옥은 남편이 쓴 시나리오로 데뷔작 <미망인>의 촬영에 들어간다.

<미망인>의 제작 과정은 그야말로 맨땅에 발을 일구는 작업이나 마찬가지였다.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 손을 벌리지 않은 곳이 없었고 그즈음 출산한 딸을 포대기에 업고 기저귀 가방을 든 채 영화 작업을 이어 갔다. 여성이 영화 현장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절이었기에, 그녀는 현장을 감독하면서 스태프들의 밥을 손수 지어 먹어야 했다. 오죽하면 회고록을 통해 “한 살짜리 딸을 업고 30여 명의 스태프를 챙기는

일이 아기 낳는 것보다 어려웠다”라고 고백했을까.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완성한 영화였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최초의 여성 감독 영화’라는 점을 홍보의 제일 앞줄에 내세웠지만 나흘 만에 극장에서 간판을 내리며 흥행에 실패했다. “두 번째 영화를 만드는 게 소원”이라던 박남옥은 끝내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하지만 박남옥의 영화가 남긴 족적은 흥행과 무관하게 실로 거대했다. “여성 감독이 아니면 착안하기 어려운 앵글과 사건의 템포, 명쾌한 리듬과 화면, 연기 등에 생활감정을 예리하게 융합하여 픽 친근감을 자아냈다”라는 1955년 2월 27일 자 <동아일보>의 평처럼 <미망인>은 단순히 여성이 감독을 맡았다는 사실 이상으로 의미 있는 완성도를 보인 영화다. 한국전쟁 중 남편을 잃고 어린 딸과 살아가던 여인이 한 청년과 사랑에 빠지면서 겪는 갈등을 다룬 이 영화는 로맨스의 틀을 빌려 시대의 그늘, 특히 여성의 위치를 날카롭게 조망했다.

전쟁미망인의 문제를 여성의 시각에서 다루고자 했던 시도와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여성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확인한 작업은 오늘날 이 시점에서도 변치 않는 의미를 지닌다. 온몸을 던져 시대의 고정관념에 균열을 내고자 한 박남옥의 열정과 도전은 이후 두 번째 여성 감독 홍은원, 세 번째 여성 감독 최은희로 이어지며 남성만을 선호했던 영화판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여성 감독이 아니면 착안하기
어려운 앵글과 사건의 템포,
명쾌한 리듬과 화면, 연기 등에
생활감정을 예리하게 융합하여
픽 친근감을 자아냈다.”



“아무리 이상한 이야기, 기괴한 이미지라도 팀 버턴의 손길을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팀 버턴의 이미지는
늘 돈키호테처럼 새롭고 낯설지만 동시에 완전히 감당하기
힘든 미지의 영역까지 가 버리진 않는다.”



납득 가능한 이미지의 최전선

팀 버턴의 미덕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상상력이라기보다는 설득력이다. 아무리 이상한 이야기, 기괴한 이미지라도 그의 손길을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팀 버턴의 이미지는 늘 돈키호테처럼 새롭고 낯설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감당하기 힘든 미지의 영역까지 가 버리진 않는다. 코믹스 <배트맨>에 다소 컬트적이고 암울한 정서를 결합한 <배트맨>(1989)을 비롯해 컬러풀한 동화 속에 흑백의 고딕 컬트물을 합친 <가위손>(1990), 크리스마스에 대한 역발상의 상상력을 선보인 <크리스마스 악몽>(1993)까지, 팀 버턴의 영화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변주한 결과물이다. 비유하자면 카메라의 각도를 살짝 트는 정도인데, 바로 이 ‘조금 다른’ 지점에 서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직접 시연하기 전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말이다.

사실 팀 버턴은 이야기에 강한 감독은 아니다. 그의 영화는 서사의 논리적 정합성에 따른다기보다는 한 컷 한 컷의 강한 이미지로 이야기를 구체화 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짜 나간다”는 자신의 작업 과정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디즈니 스튜디오 출신의 애니메이션 전공자라는 그의 경력과 무관하지 않다. 스토리텔러라기보다는 일러스트레이터에 가까운 그는 본인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충실히 화면으로 옮기는 데 주력한다. 어쩌면 팀 버턴이 선보인 독특한 상상력의 비밀은 여기

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는 황야를 방랑하는 무모한 몽상가가 아니다. 차라리 이미지의 최전선에서 납득 가능한 영역을 조금씩 늘려 나가는 성실한 장인에 가깝다.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시도’란 그런 것이 아닐까?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천재들의 비전은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어 도리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팀 버턴의 친숙하면서도 기괴한 이미지들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숏한 영감을 안기는 건 그의 상상력이 그만큼 인식의 최전방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은 어떻게 넓어지고 있는가

박남옥 감독은 당대 관객에게 외면당했지만 세월이 흘러 결국에는 가치를 인정받았다. 괴짜 취급을 받았던 팀 버턴 감독은 자신을 포함한 아웃사이드러들의 이야기를 컬트적인 이미지로 완성,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을 만들어 개성적 감독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최초의 영광과 아웃사이드러의 고독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아니 모든 선구자는 어쩌면 필연적으로 아웃사이드러의 운명을 타고나는 건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세상은 벽을 향해 기꺼이 몸을 던진 이들의 용기와 상상력에 힘입어 조금씩 넓어지는 중이다.

송경원 영화평론가 <씨네21> 기자로 활동 중이다. 영화를 출발점 삼아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경유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한다.

정서를 품은 음식, 여운이 되는 한식

유현수 셰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을 '감정'이라고 한다면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본능의 영역에 존재하는 감각을 '정서'라 부른다. 요리 역시 하나의 예술이라면 셰프는 정서가 담긴 요리를 통해 새로운 감각을 선물하는 사람일 것이다. 유현수 셰프는 한식만이 지닌 고유의 정서를 '기억'과 '여운'으로 바꿔 말했다. '맛과 멋의 여운이 남는 단아한 음식'을 목표로 오늘날 자신만의 부엌을 지키는 그를 아주호텔앤리조트 유미화 매니저와 함께 만났다.

글 유재원 사진 김재이

셰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직장이 있는 강남을 벗어나 북촌 한옥마을 '두레유'에 앉아 있으니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기분입니다.

한식과 어울리는 공간을 찾다 보니 자연스레 북촌에 등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서까래가 있고, 창밖으로는 소나무와 기와지붕이 보이는 아담하고 편안한 공간이지요.

사실 제가 최근에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요리에 막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지라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만나 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한식을 하니, 세계화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일단 한국 사람들이 한식을 쉽게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외국 분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한식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맥락에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셨다니 정말 잘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음식을 직접 해 드시다 보면, 생각보다 더 깊고 넓은 우리만의 정신, 지혜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매일 먹고 접하는 음식이기에 단순하다고 치부하기 쉽지만, 그 안에는 오랜 전통과 문화가 담겨 있거든요. '먹는다'는 건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중한 부분이지요. 저는 음식을 해서 먹는 일이 삶을 가꾸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특이하다고만 생각했던 셰프님의 이력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과감히 요리의 길로 들어서셨죠. 왠지 그 결정에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에게는 대단히 극적인, 터닝포인트 같은 순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저 음식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워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시작했는데,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거죠. 단번에 요리를 계속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운명처럼 이끌린 거네요.

하하.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유년 시절의 기억이 큰 힘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 강원도 원주 시골 마을에서 자랐거든요. 할머니 손에서요. 시골 소년이었으니 자연 속에서 뛰어논 기억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배고프면 찐 감자, 삶은 고구마, 바삭한 누룽지 같은 걸 간식으로 먹었죠. 할머니가 메뚜기도 튀겨 주셨고요.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흙냄새를 맡아 가며 성장한 건 셰프로서는 굉장히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자연의 식재료가 지닌 원초적인 맛을 일상에서 접하며 친숙해지도록 훈련했던 셈이지요. 장독 뚜껑을 열어 장 냄새도 맡아 보고, 좁은 부엌에서 이것저것 맛보고 구경하며 '설명할 순 없지만 누구나 끌리는 보편적인 맛'이 혀, 뇌, 몸에 새겨졌던 것 같아요. 큰 행운이지요.

저는 어린 시절을 김제에서 보냈는데요, 김제는 쌀이 유명한 곳인데 할머니께서 생쌀을 한 줍씩 손에 쥐여 주시곤 했습니다. 셰프님 말씀을 들으니, 저도 새삼 씹을수록 달콤해 지던 생쌀의 맛과 어릴 적 따뜻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네요.

다 옛날이야기죠. 지금은 말 그대로 자극적인 음식으로 가득하니까요. 저희에겐 그래도 어릴 적 기억이 있지만 지금 어린 세대들은 음식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깝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 음식이 영영 잊히는 것은 아닐지...





저는 셰프님이 계시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면서 중식, 양식 중심이었던 방송의 흐름을 전환하셨잖아요. 덕분에 한식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찬이십니다.(웃음) 사실 제가 TV 출연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도 한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한식 하면 누구나 어렵다, 복잡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며 선입견을 가지잖아요. 채소를 두고, 나물 요리를 해 보라고 하면 망설이지만 셀러드는 손쉽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나물 요리를 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한식도 간단하고, 만들기 쉽고, 맛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5분이라는 시간 안에 누구나 갈비찜, 보쌈김치, 국밥 같은 음식을 똑딱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걸 보여 드리고 싶었죠. 지금은 참 요리하기 좋은 시대예요. 저는 모두가 한식을 해 드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을 통해 한식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시는 한편 셰프님만의 공간에서는 전통 한식의 정체성에 세련된 재해석을 더해 근사한 파인 다이닝 코스 요리를 선보이고 계시죠. 지금 이곳, 셰프님만의 부엌은 어떤 공간인가요?

제가 운영하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선보이는 이곳은 계속해서 진화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소수를 위한 다이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대중성을 띤 다이닝을 하고 싶어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한식은 우리 음식이기에 세대를 넘어 모두 다 같이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날에만 먹는 게 아닌, 일상적으로 즐기는 다이닝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파인 다이닝이라는 게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탄생한 것이거든요. 새로운 분위기와 서비스, 특별한 맛에서 일상의 지루함을 달래 주는 새로운 자극을 발견하는 거죠. 저는 한식 파인 다이닝을 통해 편안하지만 새로운 감각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편안하지만 새로운 감각’이라는 측면에서, 셰프님의 파인 다이닝 메뉴들이 궁금해집니다. 개인적으로 단원 김홍도의 풍속도 <설후야연>에서 이름을 빌려 왔다는 불고기 메뉴 ‘토장설야맥’의 스토리가 흥미로웠어요. 우리 그림과 음식을 접목하는 방식이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닝은 색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저는 음식은 결국 문화이기 때문에 음식에도 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식은 자료가 많지 않아서 저는 오일장을 돌아다니거나, 그림을 보거나, 박물관에 가거나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디어와 힌트를 얻곤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풍속도는 좋은 재료죠.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묘사해 그린 것이니까요. 김홍도의 풍속화 <설후야연>에는 빙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이 그림을 계기로 코리안 바비큐의 히스토리를 찾아보게 되었죠. 그 결과 일소를 잡아 질긴 살을 부드럽게 조리해 먹던 역사를 옛 조리서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조리법을 현대화하고 식문화적 스토리를 가미해 ‘토장설야맥’이라는 메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전통, 이야기, 생활을 풍부하게 가미한 다이닝을 끊임없이 선보이고 싶어요.

흥미롭고 맛깔나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 셰프님을 보리굴비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찾을 수 없지만 누가 언제 먹어도 100% 확실하게 행복해지는 맛이라고나 할까요?

보리굴비만의 쫄쫄한 감칠맛을 잘 알고 계시는군요! 특별한 여운을 남기는 맛이죠.



깊이 있는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음식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 ‘맛과 멋의 여운이 남는 단아한 음식’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죠? 셰프님의 음식 철학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맛은 기본이고, 한식만이 지닌 고유의 멋까지 더해 여운있는, 즉 기억에 남는 음식을 선보이고 싶어요. 사실 기억에 남는 음식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음식을 꼽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의 생쌀, 시골에서 말던 장의 냄새와 같이 어떤 깊이 있는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음식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의 첫 번째 메뉴로 간장을 내놓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토속적인 맛의 기억, 그곳에서부터 출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자 우리 밥상에도 한결같이 오르며 시작을 알렸던 문화로서의 기억, 이런 풍부한 이야기를 요리에 담아 선물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음식들, 그리고 앞으로 셰프님이 선보이실 식탁이 너무 기대네요. 마지막으로 「아주좋은날」의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음식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각자의 부엌에서 직접 요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음식을 지킬 수 있을 때 한식에 관심을 가지고 요리를 시도해 각자의 기억을 만들어 간다면, 그 풍부한 기억이 고스란히 한식의 문화적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모두, 아주 좋은 여름, 한식에 입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curation 1
여름의 물건

한 땀 한 땀 되살아나는 책의 가치, 예술제본책

예술제본은 종이 한 장 한 장에 깃든 숨결을 이어 책의 수명을 연장하는 일을 일컫는다. 그 과정은 책을 일일이 해체해 보수하고, 다시 퀘맨 후 표지를 장식하는 정성스러운 작업으로 이뤄진다. 한 권의 책이 탄생하는데 필요한 단계만 60개,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1개월에서 1년 이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제본공방 '렉또베르소' 등에서 장인의 손길을

이어 가고 있다. 전자책이 발간되면서 '종이책의 종말'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책의 질감, 무게, 향을 탐닉하는 애독자들이 있는 한 종이책은 끊임없이 만들어질 것이다. 책을 제본하며 생명을 연장시키는 예술제본도 마찬가지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가치를 보수하며 예술제본가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를 엮어 나간다.

일상, 더 천천히

Now & Moment

“좋은 자세란 균형감, 안정감, 자각, 움직임의 우아함, 자유로운 사고와 정서를 모두 포함한다.”

리처드 브레넌 Richard Brennan

두 발을 땅에 단단히 뿌리내린 채 가슴을 펴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힘 있는 자세는 저절로 우리 몸 곳곳에 자신감을 불어넣게 마련입니다. 멋진 몸가짐을 갖추고, 이제 세상 밖으로 유량을 떠나 볼까요? 가깝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인천을 거닐면, 과거와 미래 두 가지 표정이 천천히 마음에 스며들 겁니다. 우아한 발레를 하며 일상의 리듬을 정돈하고 자신의 품격을 높여 봐도 좋고, '빛의 예술'이라 불리는 나전칠기 공예에 근 50년간 자신을 고스란히 바친 장인의 여가식미餘暇食美를 읽으며 은은한 빛을 오랜 시간 바라보아도 좋겠습니다. 삶의 태도, 나만의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균형 잡힌 시선으로 세상을 마주합니다. 아주 좋은 여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두 가지 다른 표정을 지닌 도시,

인천을 거닐다

도시는 시간을 건디고, 역사와 문화가 깃든 독특한 표정을 만들어 낸다. 인천은 하나의 표정으로 정의할 수 없는 도시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장, 인천항을 품은 중구에서는 아날로그의 향기가 진하게 피어오르고, 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야기가 샘솟는다. 그 이야기는 바다를 메워 만든 송도국제도시에 이르러, 활짝 열린 세계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바다와 섬, 사람이 빚어 내는 수만 가지 이야기를 품은 인천. 아날로그 여행지 속 오래된 골목부터 활력 넘치는 미래 도시까지 인천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해 본다.

글 이하람(여행작가) 사진 이하람, 서은미(사진작가), 성종윤(사진작가)





우리나라 최초 근대화가 시작된 곳,
인천 개항장

인천은 크게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누어 여행할 수 있다. 먼저 130여 년 전 달천 나라의 문을 개방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떠들썩했던 개항장 거리를 거닐어 보자. 인천 개항장에는 어느 항구 도시에서도 느낄 수 없는 인천만의 낭만이 흐른다.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역사가 담긴 길거리에서 차이나타운,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 일본 조계지* 등 각양각색의 문화를 지닌 여행지 곳곳을 눈으로 밟으면, 글로벌 율타리 속 문화와 130여 년 개항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산책의 미학을 아는 여행자라면 그 매력에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빠져들 것이다.

개항이라는 커다란 사건으로 인해 고깃배가 드나들던 어촌 마을은 하루아침에 낯선 외

국인을 이웃으로 맞게 되었다. 언어와 문화, 목적이 다른 여러 나라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 살기 시작하니 개항장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가 솟아났다. 서구 문물을 처음 접한 젊은 이들은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인 대불호텔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을 마시며 세상을 논했다. 청나라 상인들이 손수레에서 국수를 만들어 팔았으며, 일본 무역상인들이 은행에서 환전을 하고, 금발과 푸른 눈의 서양인들은 자유공원의 가장 목 좋은 곳에 별장을 지었다.

그동안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만 먹고 돌아갔다면, 이제 개항장 거리에서 들려오는 진짜 인천의 이야기를 들어 볼 차례다. 시대와 시대가 충돌하며 다양한 사건이 일어난 개항장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아날로그 인천 구석구석 옛보기

어울림갤러리
배다리와 가까운 도원역 철길에 조성된 어울림갤러리는 위엄위엄 걸으며 아기자기한 그림과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길이다. 동인천역으로 향하는 철길을 따라 다채로운 미술품을 전시해 놓았다.

제물포구락부
1901년에 지은 제물포구락부는 개항기 인천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이 친목을 도모하던 자유로운 사교장이었다. 오늘날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며 당시 제물포구락부의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해 두었다.

인천아트플랫폼
개항기 물류 창고였으나, 예술가들이 입주하며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전시회는 물론이고 오픈마켓, 오픈스튜디오, 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이 1년 내내 열린다.

*조계지 주로 개항장 인근에 외국인이 통상-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

1	2	3
		4
		5

- 1 일본 제1은행 인천지점은 개항 당시 인천의 유일한 금융기관이었다. 반원형 아치 현관에 르네상스풍의 돔을 얹어 좌우대칭으로 지었다
- 2 인천 중구 답동 언덕에 있는 답동성당은 사적 제287호다. 개항,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겪었음에도 옛 모습을 간직한 채 고요히 서 있다
- 3 배다리 골목의 낡아 벗겨진 철과 버려진 공터를 새롭게 가꿨다. 과거는 어여쁜 그림으로 남아 가만가만 이야기를 들려준다
- 4 배다리 마을은 가진 것을 모두 다 품고 느긋하게 풍경을 빚어 소박한 일상을 만들어 낸다
- 5 현책방 거리에서는 묵은 종이 냄새가 술술 풍긴다. 지금은 책방이 몇 군데 안 남았지만 이 거리를 중심으로 예술과 놀이 활동이 이어져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래된 책 향기가 가득한 추억의 거리,
배다리 현책방 골목

배다리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수로가 있던 시절, 배가 닿는 다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개항 이후 일본인들에게 삶의 터전을 넘겨준 조선인들이 모여 형성한 배다리 마을에는 옛 도시의 낭만과 문화가 흐른다. 이곳은 꽤 오랜 세월 동안 현책방 거리로 이름을 날렸다. 1948년 박경리 작가가 운영했다고 알려진 현책방 1호점을 시작으로 50개가 넘는 책방들이 존재했다. 1980~1990년대 배다리는 학생들이 교재를 비롯해 각종 책을 사던 곳이었으며, 엄마 몰래 새 문제집을 팔아서 용돈을 마련하던 일탈의 장소이기도 했다. 그때 그 시절, 가게마다 책을 잔뜩 쌓아 놓아서 걸을 때마다 발에 차일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은 '아벨서점', '집현전', '한미서점' 등 몇 군데만이 현책방 거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배다리 골목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공예가들이 모여들면서 여행객들을 위한 문화·예술의 거리로 변모한 것이다. 낭독회, 북투시장 등 문화 행사도 수시로 열린다. 작년에는 드라마 <도깨비>에서 주인공 공유가 책을 뽑아 읽는 장면의 배경으로 배다리 골목이 등장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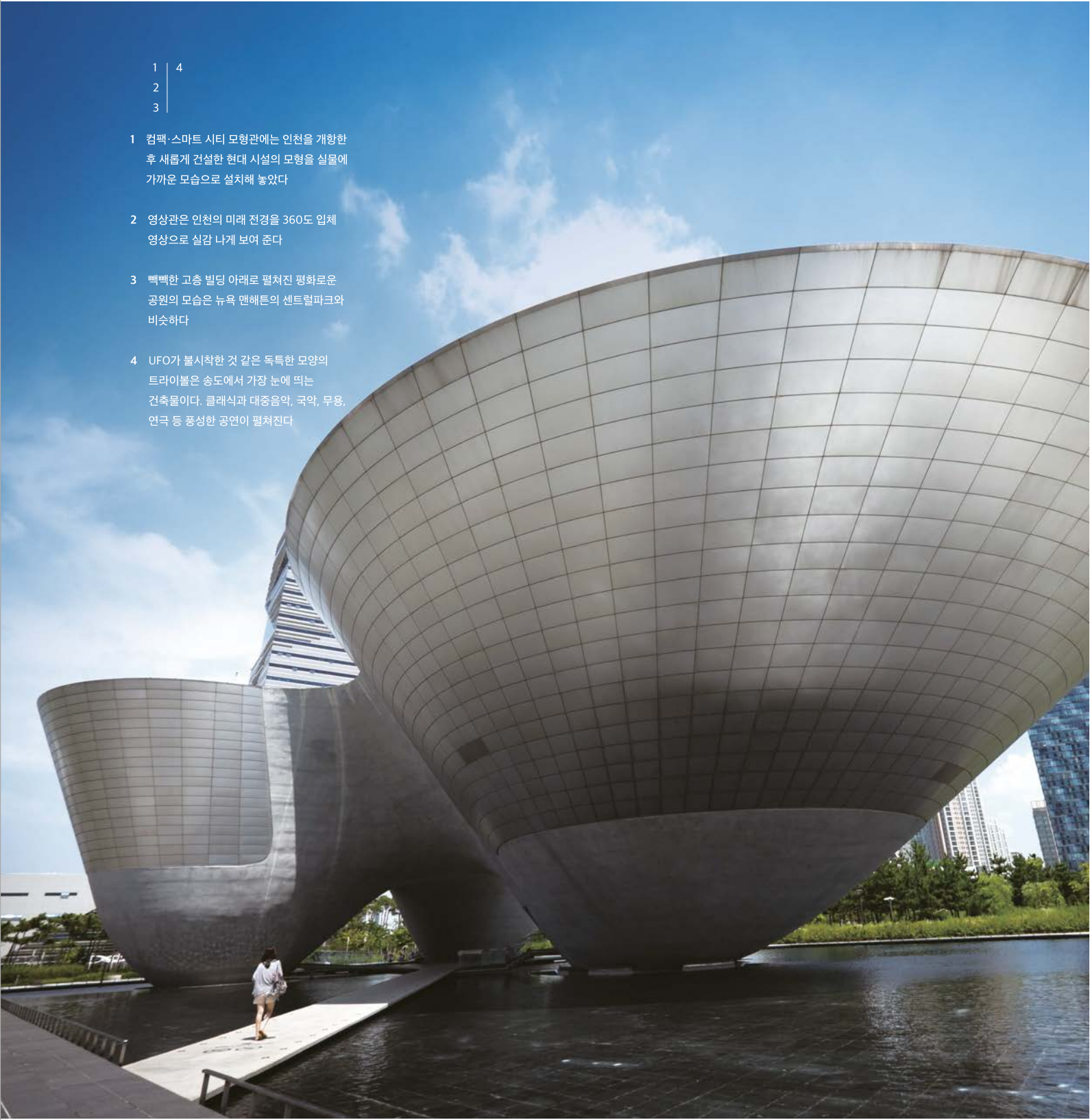




세계 도시 인천을 한눈에, 컴팩·스마트 시티
바다에서 땅으로, 땅에서 도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 송도국제도시는 고층 빌딩이 가득한 최첨단 도시다. 쪽쪽 뻗은 도로와 깨끗한 거리, 높게 솟아오른 빌딩 숲 가운데 가슴이 탁 트이는 드넓은 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컴팩·스마트 시티[Compact Smart City]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꼽히는 송도국제도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시관이다. 근대화의 출발부터 국제도시로의 변신까지 인천의 변화무쌍한 역사에 대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공간에 전시해 놓았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인천의 바닷길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송도국제도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등 인천의 숨은 역사를 알기 쉽게 풀어놓아 아이들의 교육 자료로도 안성맞춤이다. 인천 시민에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여행객에게는 인천이라는 도시가 주는 매력을 선물하는 흥미롭고 특별한 공간이다.

도시의 푸른 숲, 센트럴 파크
바다를 메운 도시는 공간에 인색하지 않다. 바다가 언제든 품을 내주니 도시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어디서나 가슴이 확 트인다. 송도국제도시는 푸른 산이 없는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숲을 들여 놓았다. 바닷물을 이용한 인공 수로를 중심으로 조성한 센트럴파크Central Park는 국내 최초 해수공원이다. 보트와 수상택시가 달리는 수로의 길이는 무려 1.8km. 한여름 도시의 열섬 현상을 막고 시민들에게 녹색 휴식을 선사한다. 센트럴파크에는 산책공원, 테라스정원, 조각공원 등 다섯 개의 테마공원이 있다. 토끼와 꽃사슴이 뛰놀고 물레방아가 도는 정자가 있는 이곳에서는 바다를 메운 도시의 공원이라 치부하기엔 꽤나 짙은 자연의 향기가 느껴진다. 수변을 따라 걷다 보면 공원 끝에서 맞이하게 되는 송도의 멋진 노을은 서해에서 보는 낙조만큼 아름답다.



1 | 4
2 |
3 |

- 1 컴팩·스마트 시티 모형관에는 인천을 개항한 후 새롭게 건설한 현대 시설의 모형을 실물과 가까운 모습으로 설치해 놓았다
- 2 영상관은 인천의 미래 전경을 360도 입체 영상으로 실감 나게 보여 준다
- 3 뻗뻗한 고층 빌딩 아래로 펼쳐진 평화로운 공원의 모습은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와 비슷하다
- 4 UFO가 불시착한 것 같은 독특한 모양의 트라이볼은 송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이다. 클래식과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등 풍성한 공연이 펼쳐진다

📍 디지털 인천 구축구석 옛보기

송도 미래길 투어

송도가 초행이라면 약 2시간 코스의 미래길 투어를 신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컴팩·스마트 시티, 트라이볼 등 주요 관광지를 해설사와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예약은 필수지만,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 문의 032-440-4055)

오션스코프

오션스코프는 각기 다른 높이의 전망대에서 원하는 각도로 서해와 인천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일몰 명소다. 전망대의 틀을 깨는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대상을 거머쥔 건축물이기도 하다.

NC큐브 커널워크

인공 수로를 따라 걸으며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쇼핑 센터다. 사계절을 주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으로 각각 나누었다. 수로 주변의 조각품을 감상하며 예술을 즐길 수 있고, 유럽풍 노천카페에서 잠시 쉬어 갈 수도 있다.

보기에도 추기에도

아주 좋은 발레

조각상을 닮은 정제된 선과 부드러운 결을 지닌 신체를 보면 저절로 찬사가 터져 나온다. 갈고 닦은 몸을 지닌 발레 무용수들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경이로운 춤을 추는 광경은 그 자체로 극상의미를 선사하게 마련. 손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근육을 아름답게 가다듬는 발레의 기원과 역사를 알아보고 우아하게 우리의 몸매도 단련해 보는 건 어떨까?

글 심정민(무용평론가) 일러스트 민지홍

심정민 무용평론가
한국춤평론가회 회장과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한 바 있으며 여러 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저서로는 『무용비평과 감상』과 『새로 읽는 뉴욕에서 무용가로 살아남기』의 다수가 있다.

©Korean National Ballet, <말괄량이 길들이기>

끊임없이 진화해 온 발레

발레는 한국 무용이나 현대 무용에 비해 대중에게 훨씬 더 가까운 예술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다 눈길을 사로잡는 기교적인 동작까지 시·청각적 즐거움을 고루 갖췄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발레단인 국립발레단, 유니버설발레단의 내한 공연 객석이 언제나 붐비는 것만 봐도 우리의 발레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보는 것은 익숙해도 직접 추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았던 것이 사실. 그런데 이런 발레가 어느새 남녀노소 모두가 경계 없이 즐기는 취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는 하나의 취미로 향유되고 있지만 16세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프랑스 왕실에서는 춤과 함께 연주와 노래, 낭송과 대사, 무대장치와 의상 등이 어우러진 호사스러운 궁정 연회를 벌였다. 이것이 최초의 발레 장르인 궁정 발레다. 발과 팔의 기본자세로 대표되는 간단하고 기초적인 동작들이 이때부터 만들어져 발전을 거듭했다.

오늘날 대중에게 친숙한 형태의 발레 장르가 등장한 시기는 19세기다. 19세기 전반에는 <지젤 Giselle>이나 <라 실피드 La Sylphide> 등 낭만 발레가 전개되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발레리나(여성 발레 무용수)들이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의상과 토슈즈를 갖춘 채 동화 속 요정처럼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몸짓을 펼쳐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9세기 후반에는 발레의 중심지가 러시아로 옮겨 갔다. 발레의 형식을 완성한 고전 발레가 러시아 황실 발레단에서 꽃피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발레의 형태가 완전하게 자리 잡은 시기이기도 한데 특히 관객의 환호와 기대에 힘입어 화려하면서도 강도 높은 동작 기교들이

속속 만들어졌다. <백조의 호수 Swan Lake>, <호두까기인형 The Nutcracker> 등 대부분의 고전 레퍼토리가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 시기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개성, 표현, 독창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예술 춤, 현대 무용이 등장했다. 이는 발레에도 영향을 미쳐 현대 발레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대 발레는 고전 발레의 규칙성, 형식미에서 벗어나 감정을 표현하고 주제를 강조하는 성향을 나타냈다. 미국의 게오르게 발란친 George Balanchine, 프랑스의 롤랑 프티 Roland Petit, 영국의 프레더릭 애슈턴 Frederick Ashton, 독일의 존 크랭코 John Cranco가 잘 알려진 현대 발레 안무가다.

오늘날에 이르러 발레는 이야기의 구조나 등장인물의 성격이 전형적인 틀을 벗어나기도 하고, 동작을 해체해 혁신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추상적으로 이미지와 분위기만 전달하기도 하며 자유, 전위의 몸짓에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안무가 매슈 본 Matthew Bourne의 <백조의 호수>는 약 100년 동안 고착되어 일종의 고정관념으로 뿌리내린 이야기와 등장인물을 낱알이 깨부셨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전유물이었던 백조 역은 카리스마 넘치는 근육질의 남성 무용수가 맡았으며, 원전에서 백조를 구원했던 왕자는 심신이 미약해 도리어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로 바뀌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컨템퍼러리 댄스의 선구자인 윌리엄 포사이스 William Forsythe는 무게 중심을 어긋나게 하거나 동작 자체를 뒤틀고 꺾는 등 발레의 정형화된 구조를 깨부숨으로써 '발레를 절단했다'는 대담한 평가까지 받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또 다른 해석으로 관객을 맞이하는 최근의 발레는 많은 사람의 관심이 되고 있다.

▶ 화면에 흐르는 낭만과 리듬, 발레 영화



<블랙 스완>(2010)

연약하고 순수한 백조 연기로는 최고로 꼽히는 발레리나 니나. 그녀는 <백조의 호수>에서 백조와 흑조, 1인 2역의 주역으로 발탁된다. 하지만 도발적인 흑조를 연기하는 데는 어쩔지 서툴기만 하다. 그런 와중에 새로 입단한 릴리가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그녀를 위협한다. 감춰 왔던 어두운 내면을 표출하며, 흑조를 그려 내기 시작한 니나의 완벽한 연기를 감상해 본다.



<빌리 엘리어트>(2000)

1984년 영국 북부의 한 탄광촌. 소년 빌리는 광부로 일하는 아버지와 형, 그리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함께 한집에서 살고 있다. 빌리의 유일한 취미는 권투. 권투를 하러 체육관에 간 소년은 공간 한 귀퉁이에서 우연히 발레를 본 후 마음을 끌리고,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다. 발레를 할 때면 '하늘을 나는 새'가 된 것 같다고 말하는 빌리의 리드미컬한 안무 속으로 빠져 본다.



<피나>(2011)

천재적인 독일 출신의 무용가 피나 바우슈 Pina Bausch의 작품 세계가 3D 영상으로 펼쳐진다. 피나 바우슈의 대표작 <봄의 제전>, <카페 뮐러>, <콘택트호프>, <보름달>에서는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들이 몸짓으로 생생히 살아난다. 살갓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과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담아낸 <피나>. 감각적이고 경이로운 시각 발레 여행을 지금 떠나 보자.

몸과 마음을 우아하게 만드는 발레

생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발레 공연을 찾아 감상하는 것은 무료한 삶에 아름다운 감성과 카타르시스를 선물한다. 그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눈으로 음미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발레를 추는 것 역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발레는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근력과 지구력을 향상시킨다. 척추와 어깨, 골반의 바른 정렬을 유지하는 동작은 거북목, 골반 비대칭 등 자세 교정에도 효과적이다. 더불어 발레를 시작하기 전 스트레칭을 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저절로 향상된다. 일상에서 흔히 쓰는 근육 외에 잔 근육까지 함께 사용하므로 신체 라인이 우아하게 정돈된다. 그뿐인가. 발레는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리듬감 있고 부드러운 자세를 따라 하다 보면 몸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발레 동작을 하면 차분한 템포의 선율에 자연스럽게 빠져들며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발레리나 중에는 어린 시절 몸이 허약하거나 다리가 휘어서 혹은 너무 내성적이거나 소심해서 발레를 시작한 이가 적지 않다. 훗날 유명한 발레리나가 된 이들은 발레를 통해 자신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했다고 회고한다. 발레의 긍정적인 효과는 전문 무용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최근 일반인들 사이에서 발레 배우기 열풍이 일어나며 발레에 입문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보기에도, 추기에도 아주 좋은 발레에 많은 이가 주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보는 발레에서 하는 발레로

우리 주위에도 발레를 배울 수 있는 클래스가 의외로 많다. 동네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발레 학원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일반 유치원에서도 발레를 가르치곤 한다. 특정 세대에 맞춰 진행되는 발레 클래스도 있다. 퇴근 후 자기계발을 하는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발레, 건강한 노후를 원하는 50~70대를 위한 실버 발레 등이다. 리드미컬한 재즈가 스며든 재즈 발레나 자유분방한 힙합을 접목한 힙합 발레처럼 대중적인 춤 장르와 융합한 클래스도 접할 수 있다. 발레 동작을 활용한 발레 피트니스나 발레 스트레칭은 미란다 커Miranda Kerr, 최지우 등 국내외 연예인도 즐겨 한다고 알려져 대중에게 인기가 높다. 그중에서도 발레 필라테스는 발레, 요가, 헬스의 장점을 적용해서 만든 치료 운동으로 상해를 입은 무용가들도 따라 할 만큼 전문적이고 안전하다. 요즘에는 굳이 스튜디오를 찾아가길 필요 없이 유튜브나 서적을 통해 배우는 홈 발레까지 등장한 만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발레를 시작할 수 있다.

보는 발레든 추는 발레든, 우리가 향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발레의 형태는 무궁무진하다. 발레 영화나 음악, 공연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에서 나만의 속도와 리듬감을 찾고 싶다면 이번 기회에 발레에 입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가까운 공간 혹은 집에서 간편하고 즐겁게 발레를 추고 느끼다 보면 생활 곳곳에서 리듬감이 배어 나올 것이다. 뻑뻑해서 걱정이라는 핑계는 잠시 넣어 두고, 가볍고 우아한 마음으로 하루에 10분씩 실천해서 몸매를 다듬어 보자.

+ 함께하면 더욱 아름다워지는 발레 음악



〈볼레로Bolero〉라벨 Ravel
현대 프랑스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라벨. 그는 〈볼레로〉를 두고 "나는 단 하나의 걸작만을 썼다. 그것이 〈볼레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곡에는 음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곡은 특정한 선율이 반복된다. 다양한 악기가 함께 연주되며 선율은 더욱 무거워지고 강해지는데 마치 '관현악적 조직'과도 같다. 반복되는 박자를 따라, 천천히 우아한 동작을 선보여 본다.



〈Take Me To Church〉호지어Hozier
19세에 영국 로열발레단 최연소 수석 무용수에 발탁된 세르게이 폴루닌Sergei Polunin. 그에게는 '발레계의 베드 보이'라는 별명이 있다. 늘 사건·사고로 신문을 장식하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은퇴를 결심하고 발레에 마지막 인사를 보내는 영상을 찍었다. 〈Take Me To Church〉에 맞춰 춘 것으로, 다큐멘터리 〈댄서〉(2017)로도 상영되어 전율을 선사했다. 힘찬 발레 동작을 취할 때 특히 적합하다.



〈Stay With Me〉샘 스미스Sam Smith
대중 음악계를 대표하는 가창력을 지닌 팝 스타 샘 스미스의 곡을 발레리나들이 파워풀하게 해석했다. 캘리포니아 헬리오스 댄스 시어터 소속의 발레 댄서들이 〈Stay With Me〉에 맞춰 강렬하면서도 아름다운 발레를 춘 것이다. 팝송과 발레의 절묘한 만남이 진한 감동을 자아낸다. 각종 CF에도 등장해 우리의 귀에도 친숙한 멜로디를 들으며 리듬감 있고 세련된 발레를 따라해 본다.

하루 10분, 3단계 실천법 발레 피트니스 첫걸음!

헬스를 끊어도 작심삼일, 늘 온몸이 찌뿌둥한 직장인 김아주. 부주한 일상을 보내는 그녀의 신체는 금방 쓰러질 건물처럼 위태위태하다. 그녀의 지친 몸에 활기를 되찾아 줄 방법은 없는 걸까? 김아주를 위해 간단히 따라 하는 것만으로 근육 통증이 풀리고 자세가 교정되는 발레 동작을 엄선해 보았다.



Lesson 2. 사무실에서 틈틈이 하는 발레

김아주는 업무에 몰입하다 보면 어깨가 빠근해지고 허리에 통증을 올 때가 많다. 딥 워크를 방해하는 것까지 증세! 잠깐 시간을 만들어 사무실 의자를 사용해 발레 동작을 취한다면 어깨 결림과 요통 찌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1. 양발 뒤꿈치끼리 붙인 후 몸을 곧게 편다. 한 손은 의자 위에 살포시 얹고, 한 손은 '알라스콩' 자세를 취한다. 팔로 큰 나무를 끌어안는 듯 동그랗게 포즈를 취하면 된다.
2. 손끝으로 긴 포물선을 그려 상체를 의자 쪽으로 구부린다. 호흡을 깊고 길게, 5회 정도 마시고 내린 뒤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온다.



Lesson 1. 아침을 힘차게 깨우는 발레

죽자근막염에 걸린 김아주는 아침에 일어나 첫 발걸음을 땔 때나,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지면에 발을 디딜 때 발뒤꿈치에 통증을 느낀다. 장시간 서 있었던 것이 병의 근원이 된 것. 그런 그녀에게 '드 미 플리에' 동작을 제안한다. 발의 통증을 줄여 주며, 아킬레스건의 유연성을 길러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1. 발뒤꿈치를 붙이고, 두 발이 직선을 이루도록 만든다. 그 상태에서 양손으로 집에 있는 식탁, 의자 등을 잡는다.
2. 무릎을 굽히며 몸 전체를 아래로 살짝 내린다. 이때 무릎 모양이 마름모꼴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무릎은 발가락 방향으로 턴 아웃 한다.



Lesson 3. 취침 전 베드타임에 하는 발레

드디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온 김아주. 신발을 벗고 침대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나 구두가 잘 벗겨지지 않는다. 장시간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장인들이 흔히 겪는 하체 부종 때문이다. 이 역시 자기 전 찜을 내서 하는 발레 동작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1. 다리를 양옆으로 가능한 한 많이 벌리고 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운다. 양팔은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린 채 천천히 호흡한다.
2. 호흡을 내뿔으며 옆구리를 늘린다는 느낌으로 몸을 옆으로 숙인다. 좌우 5회씩 반복하며 하체와 옆구리가 당기는 느낌을 즐겨 보자.

나전에 불어넣은 전통의 숨결,

나전장 이형만의



오랫동안 한길만 걸어온 삶에서는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연륜이 풍겨 오고 잔잔한 감동마저 느껴진다. 수천 년간 이어진 전통에 기반해, 나전칠기 공예 기술을 갈고 닦은 나전장 이형만의 행보 또한 그러하다. 우리네 삶의 근본을 알고 이를 바르게 잇는 장인의 손 아래 오늘도 자연의 색채가 은은한 멋을 자아낸다.

글 차경주 사진 전재현

옷 향이 잔잔하게 흐르는 공방 한쪽에서 자개가 오색영롱한 빛을 드러낸다.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학이 되어 날갯짓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화로 활짝 피어나 아름다운 정경을 빚어낸다. '빛의 예술'이라고 불리는 나전칠기 작품들이다. 나전칠기 공예는 전복, 소라 등의 패각을 얇게 갈아 오린 것을 물건의 표면에 옷칠로 붙여서 꾸미는 것을 말한다. 나전장 이형만은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 대부분을 온전히 작업에 쏟고자 한다. 45가지의 공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나전칠기는 인고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빠르면 6개월, 보통의 경우 1년 이상 제작 기간이 소요되

는데, 손이 많이 가는 장롱 같은 경우 2~3년이 걸리는 작업이다. 공방에 앉아 패각을 자르는 그에게 자개의 매력에 관해 묻자 “오색영롱한 자연의 색”을 언급하며 “그 색채는 각도와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고 덧붙인다.

본디 나전칠기의 고장인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전장의 길에 들어섰다. 나전칠기의 거장이자 평생의 스승인 김봉룡 선생에게서 기술을 사사했다. 하지만 배움의 과정은 지난했다. 1년은 스승의 잔심부름을 하고, 그다음 1년 동안 작업 과정을 어깨너머



로 익혔다. 이렇게 기초를 겨우 습득하고 나서야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할 수 있었다. 군을 막 제대한 뒤, 질 좋은 옷칠을 찾아 강원도 원주로 이주한 김봉룡 선생의 권유로 그곳에 삶의 터전을 꾸렸고, 199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에 지정되었다.

수십 년간 한 우물을 판 그는 그 돌레를 넓히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 제품에 나전칠기를 접목해 선보이기도 했다. 후진을 양성해 전통의 맥을 잇는 데도 힘을 보탠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한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에서

나전칠기반 강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한다. 다행히 20~30대 젊은이의 관심이 늘면서 학생들의 연령층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통은 케케묵은 골동품이 아닙니다. 재료, 공정 등 기본은 고스란히 전수해야 하지만, 결국 기법과 형태는 변화하게 마련이지요. 젊은 사람들이 현대적인 기술과 접목해 전통을 미래로 이어 가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바른 마음으로 만들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라며 반세기 동안 오직 한 길을 걸어온 나전장 이형만. 그는 전통에 기반하되 동시대와 호흡하며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광채를 갈고 닦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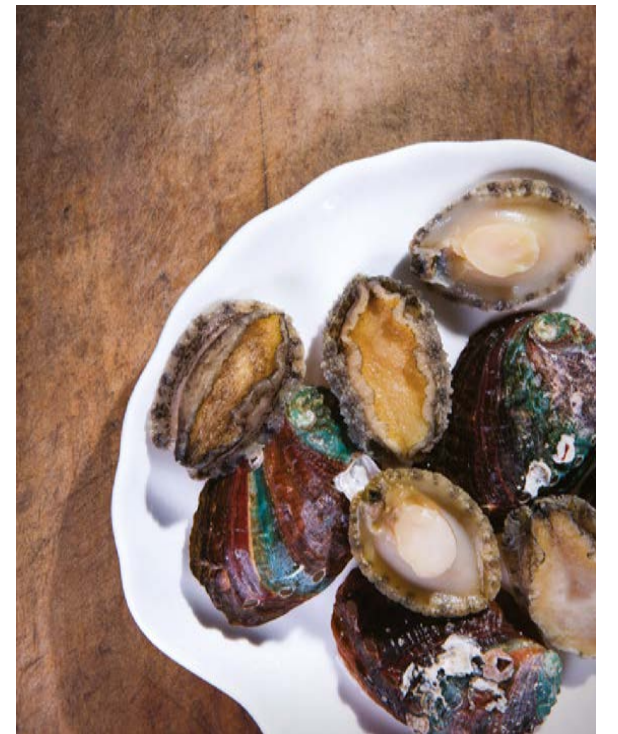
자개의 본고장, 통영

저는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습니다. 남해안의 물 맑은 통영은 자개의 본고장이지요. 제 고향에서 오색 빛의 전복 껍데기는 지천으로 널린 물건이었어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 재료였는데, 해상 오염 때문에 점차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죠. 마음에 드는 질 좋은 국산 자개를 구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까닭에 좋은 자개가 보이면 빛을 내서라도 무조건 사들입니다.



싱싱한 바다 향 머금은 맛, 전복회

전복은 언제 먹어도 별미죠. 다른 해산물에 비해 영양분도 풍부합니다. 싱싱한 전복을 골라서 살을 발라낸 다음 살짝 데쳐서 얇게 썬 회를 초고추장 듬뿍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쫄득하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씹는 재미도 있고요. 입 안 가득 신선한 바다 향을 느끼며 가볍게 곁들이는 소주 한잔이 일품입니다. 보양식을 먹으며 기운을 충전하기 때문에 일흔이 넘어서도 현재진행형으로 일에 몰두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집이 곧 직장, 일이 즉 취미, 장인의 길

저에게 취미는 곧 일이에요. 1층이 공방이고, 2층이 집인데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공방에서 작업에 몰입하곤 하죠. 제가 일하는 것을 보고는, 가족들도 옆에서 짬짬이 기술을 익혀서 어느샌가 공예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실력도 좋아요. 아내와 여동생은 강원도공예품대전에서 각각 특별상과 금상을 받은 전적도 있죠. 두 아들 광웅이와 상훈이는 나전장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제 작업에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오색영롱한 자연의 빛, 자개

조개껍데기가 품은 자연의 색감은 은은하면서도 화려합니다. 여러 빛깔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데, 저는 그 곱고 환한 빛이 눈부시게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영롱함이 내려앉은 나전칠기도 그렇고요. 예전에는 작품에 자개를 많이 사용해 그 화려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자 했는데, 요즘은 여백의미를 살리며 작업하고 있어요. 옷칠의 검은 바탕 또한 자개와 조화를 이루는 담담한 멋이 있죠.

May the Force Be With You, 그리고 R2-D2가 함께하기를!

〈스타워즈〉 시리즈 속 R2-D2

크고 거대한 로봇만이 세상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둥글고 귀엽지만 매우 유능한 로봇이 있다. 이 로봇은 영화 속에서는 우주의 평화를 지켰고, 영화 밖에서는 미국의 신화를 건설했다. 이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까지 책임지러 온 귀요미, R2-D2는 단순한 영화 캐릭터를 넘어섰다.

글 정재광

레아 공주가 다스베이더를 피해 '죽음의 별' 설계도를 R2-D2에게 전달하고 있다 - 〈스타워즈 에피소드 IV 새로운 희망〉중 -

신화가 된 SF 〈스타워즈〉와 함께 진화해 온 드로이드

1977년 첫 번째 에피소드를 개봉한 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리즈를 이어 온 〈스타워즈〉. 그 영향력은 이미 대중문화를 넘어섰고 특히 미국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신화가 되었다. 200년 남짓의 짧은 역사를 지닌 이민 국가에서 정체성을 갈구하던 미국인들은 “아주 먼 옛날”이라는 글귀로 시작하는 스페이스 오페라를 그들의 역사로 만들었다. 이 건국 신화의 영웅들은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모험 활극을 펼친다. 그리고 그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반짝이는 활약으로 이 시리즈를 지켜 온 조력자가 있다.

STAR WARS

R2-D2는 C-3PO와 함께 스카이워커 가문을 섬겨 온 드로이드로 에피소드 8편에 모두 등장하는 개근 캐릭터다. 루크와 레아 남매의 친어머니인 파드메의 유품이자, 가장 소중한 동료이며, 둘도 없는 가족이다. 귀여운 외모와 달리 입은 상당히 험한 편이라 단짠인 C-3PO와 자주 티격태격한다. 주로 개그를 담당하는 C-3PO에 비해 R2-D2는 출중한 능력을 자랑한다. 해킹 및 우주선 제어·수리에 능하며 심지어 전투에서 상대 병기를 무력하게 만드는 장면도 자주 보여 준다. 게다가 에피소드마다 이야기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군사기밀을 품고 있어 빠질 수 없는 캐릭터다.

〈스타워즈〉의 세계관을 창조하고 관리해 왔던 루카스필름은 2012년 월트 디즈니에 인수된다. 월트 디즈니로 말할 것 같으면, 마키마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캐릭터를 아직도 살아 있게 한 머천다이즈의 왕. R2-D2 입장에서 생명력을 연장해 줄 든든한 파트너를 만난 셈이다. 이를 입증하듯 〈스타워즈〉의 캐릭터 상품들은 2013년 한 해 북미 지역에서만 14억 6,700만 달러(약 1조 6,350억 원)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스타워즈〉의 대표 로봇 캐릭터 R2-D2가 이 흥행을 이끌었음은 물론이다.

디즈니 시대를 맞아 새롭게 시작한 스타워즈 유니버스에서는 R2-D2의 뒤를 잇는 개성 있는 드로이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스타워즈 : 깨어난 포스〉(2015)에서 처음 선보인 BB-8은 구체형으로 기동력에 귀여움을 더한 캐릭터다. 가장 최근에 개봉한 〈한 솔로 : 스타워즈 스토리〉(2018)에 등장하는 L3-37은 무려 드로이드의 해방을 외치는 인권운동가로 출현한다. 새 시대의 관객을 흡수하며 진화하는 〈스타워즈〉 시리즈와 함께 드로이드도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이뤄 가고 있다.

스크린을 넘어, 우리 곁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된 R2-D2

“영화 소품 중 ‘최고 중의 최고’라고 할 수 있죠. 피카소의 작품을 옆에 두고 있는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영화 소품 감정 전문가 스테파니 콘넬Stephanie Connell이 R2-D2의 가치를 두고 한 말이다. R2-D2는 영화 속 소품의 가치를 한껏 끌어올린 주목할 만한 존재다. 2017년 여름, 영화 속에만 존재하던 R2-D2가 본모습 그대로 관객들을 만났다. 캘리포니아 칼라바사스California Calabasas에서 열린 할리우드 영화 소품 경매에 1977년부터 1983년까지 〈스타워즈〉 시리즈에 출연했던 R2-D2들이 출품된 것. 낙찰 가격은 276만 달러(약 31억 6,000만 원)에 달했는데, 미국 대중문화에서의 가치를 생각하면 과한 가격이 아니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R2-D2의 수많은 팬은 열광했다.

근데 그건 움직이지도 못하는 영화 소품일 뿐이지 않냐고? 실제로 움직이는 R2-D2도 있다. 스피로Sphero에서 출시한 〈스타워즈〉 시리즈의 R2-D2는 스마트폰 앱으로 직접 조종이 가능하다. 특유의 사운드와 함께 영화 속 동작을 선보이는가 하면, AR 모드를 통해 우주선 밀레니엄 팔콘으로 우리를 안내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R2-D2는 여러 형태로 우리의 일상에 깃들어 있다. 따뜻한 커피로 아침을 깨워 주는 프렌치 프레스 버전의 R2-D2나, 소파까지 시원한 맥주를 배달해 주는 냉장고 R2-D2도 출시된 바 있다. 오랜 세월 루크 스카이워커와 레아 공주를 도왔던 것처럼 R2-D2는 지금도 든든히 우리 곁을 지킨다.



로봇형 슈퍼컴퓨터 R2-D2

R2-D2는 로봇 캐릭터에 기대하는 감초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존재감을 과시하며, 언제부턴가 등장만으로도 팬들을 설레게 하는 슈퍼스타가 되었다. 복잡한 기계 수리, 해킹도 가능한 만능 로봇이다.

#일상 속 로봇 이야기



R2-D2 커피 프레스

스타워즈 공식 라이선스 제품으로, 전자회로 같은 미세한 부분까지 잘 재현했다. 귀여운 R2-D2가 만들어 주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R2-D2 움직이는 냉장고

무선으로 조정 가능한 R2-D2 냉장고다. 영화 속에서 보던 동작을 따라 할 수 있고, 음성도 재현했다. 주방까지 가기 번거로울 때 R2-D2를 부르다면 시원한 맥주도 가져다준다.

curation 2
여름의 물건



살아 움직이는 책 속 세상, 3D 증강현실책

기존의 평면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입체 영상이 튀어나오는 3D 증강현실책이 있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일반 컬러링책에 하듯 원하는 색깔로 그림을 색칠한 후 스마트폰 앱으로 촬영하면 색을 입힌 캐릭터가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인다. 디즈니에서는 인터랙티브 디자인 도구 유니티Unity를 이용해 그림의 뒷모습에 자동적으로 색상 패

턴이 적용되고 색이 덧입혀져 완전한 입체 형상이 구현되도록 설계했다. 한국 ‘종이나라’에서 구현한 증강현실책은 손으로 화면을 터치하면 색깔도 바꿀 수 있다. 단순한 증강현실이 아니라 직접 색칠한 도안을 3D로 구현해 주기 때문에 독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기술의 발달은 어느덧 상상 너머에만 존재하던 즐거움을 눈앞에 재현하고 있다.

아주, 더 높이

Aju & Style

“상상력은 기억과 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Jorge Luis Borges

아르헨티나의 작가 보르헤스는 우리의 정신에 망각이라는 수많은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은 사라져 가는 것들을 끊임없이 복원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채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가 만드는 기억이 언젠가 망각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다면 어떤 기억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젊은 에너지와 영감 가득한 호텔에 머물며 하루를 지내 보아도 좋고, 몰입의 에너지를 발휘해 하루 일과를 일찌감치 마친 뒤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박한 식사를 계획해도 좋을 겁니다. 천천히 공원을 거닐며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면 긴 여름밤이 짧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은 기억을 완성하는 특별한 상상력, 그 놀라운 가능성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RYSE

문화적 영감,
창조적 에너지

RYSE
Autograph
Collection

오늘날 호텔은 숙박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그곳을 찾는 사람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는 문화 공간이다. 호텔을 고를 때, 제공되는 문화적 경험과 함께 머무는 사람들의 취향을 섬세하게 고려하는 고객이라면 2018년 4월 홍대 앞에 문을 연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기존 호텔이 고수해 온 문법을 과감히 뒤집고 홍대의 젊은 에너지, 다양한 예술적 감성,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이곳에서는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된다.

글 유재원 사진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HONGDAE #CREATIVE

창의력의 진원지로 나아가는 호텔

홍콩에 본사를 둔 브랜딩&디자인 전문 회사 마크&상탈의 공동 대표 마크 캔시어Marc Cansier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Marriott International의 30개 브랜드 중 하나인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의 브랜딩 작업을 시작하며 '지역의 현지 문화를 투숙객에게 소개함으로써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호텔'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 결과 '최고의 힙스터들이 모이는 홍대 앞 핫 플레이스', '여행자 개개인의 감성과 지역 문화를 연결하는 공간', '자신만의 취향을 디자인할 수 있는 곳'과 같은 수식어를 지니게 된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은 현재, 홍대 인근의 즐거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자유

롭고 창조적인 감성에 공감하는 인근의 크리에이터들은 1층 로비에 모여 미팅을 하거나 노트북을 켜고 개인 작업을 한다.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을 찾는 고객들은 자연스레 이들과 교류하게 되고, 홍대 문화가 지닌 특별한 감성을 체화하며 색다른 방식으로 서울을 즐기기 시작한다. 젊은 에너지와 예술적 영감으로 가득한 공간,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자유롭게 교류하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에서는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된다. 서울을 넘어 전 세계 고객을 홍대 앞으로 초대하고 있는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을까?

#YOUTH CULTURE

젊은 에너지로
가득한 공간



로비 디자인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히는 콘크리트 텍스처



3층에 위치한 '프린트 컬처 라운지'



타르틴 [토스트 바]가 선보이는 샌드위치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은 '홍대앞'의 대로와 골목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지역에 대한 다채로운 감각과 경험을 제공하기 알맞은 장소죠. 개방형 로비가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며 진화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 203 디자인 스튜디오 장성한 대표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은 지역 특유의 젊고 자유로운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존 호텔들이 따르던 형식을 완전히 뒤집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1층 로비의 풍경. 호텔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체크인 프런트를 과감하게 3층으로 올려 보내고, 다양한 사람이 머물고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다.

통유리 인테리어는 바깥과 내부를 부드럽게 연결하고, 핑크색을 비롯한 각기 다른 색깔이 오묘하고 아름답게 아우러진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베이커리 타르틴 [커피 바]와 타르틴 [토스트 바]는 누구나 부담 없이 머물다 갈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덕분에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의 로비에는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홍대 문화가 궁금한

외지인까지 다양한 사람이 모이고 자유롭게 교류한다. 투숙객만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로비를 과감하게 개방한 결과 호텔 내부에 끊임없이 홍대 앞의 젊은 에너지가 유입되는 것이다.

'홍대앞'에서 약 10년째, <스트리트H>라는 문화 매거진을 발행해 온 203 디자인 스튜디오의 장성한 대표는 이곳이 홍대 특유의 젊은 문화, 스트리트 감성을 품고 있다고 말한다.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은 이와 같은 감성을 객실, 카페, 편집숍, 갤러리, 루프탑 바&라운지 등 세분화된 콘텐츠를 통해 섬세하게 풀어낸다. 이는 획일화된 서비스 보다는 나만의 감성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선호하는 젊은 여행자들의 취향을 '저격'하며 호텔 문화의 새로운 국면을 이끌고 있다.

“제가 작업한 아티스트 스위트는 <트와일라잇 존>이라 불립니다. ‘트와일라잇twilight’은 밤과 낮 사이, 경계의 시간이자 빛이 도달하는 심해의 층을 의미하지요. 저는 고객들이 <트와일라잇 존>에 머물며 일상의 세상과는 조금 다른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치미술가 박여주

고객이 가장 기대하게 되는 공간인 객실은 호텔의 얼굴이다.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의 객실은 흥대 앞의 젊은 문화와 에너지에 매리트 인터 내셔널 ‘오토그래프 컬렉션’의 브랜드 가치를 결합해 최고의 서비스와 특별한 감성을 제공한다. 이곳의 객실은 6가지 타입, 총 274개로 예술적 경험과 개성적 디테일, 쾌적한 휴식을 두루 충족시킨다.

내 안에 숨어 있는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는 크리에이터 룸, 비즈니스를 위한 안락함을 제공하는 에디터 룸,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리더를 위한 디렉터 룸, 크리에이터들의 협업 및 친목 도모에 최적화된 프로듀서 스위트, 객실을 예술 작품처럼 구성한 아티스트 스위트, 아티스트가 직접 음식, 아트, 전시 등으로 채울 수 있도록 구성된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 스위트. 객실 타입에서도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이 주목하는 창조적 에너지가 느껴진다. 이 중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곳은 단연 아티스트 스위트 객실이다. 국내외 아티스트가 인테리어에 참여한 4개의 객실에는 각각 온라인 스토리텔링 플랫폼 매칸Maekan, 설치미술가 박여주, 사진작가 로랑 세그리셔Laurent Segretier와 페인팅 아티스트 찰스 문카Charles Munka의 개성과 예술적 영감이 깃들어 있다.

특히 설치미술가 박여주가 작업한 객실은 빛과 색을 활용해 현실 너머의 색다른 차원으로 고객들을 안내한다. 미지의 세계, 황홀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객실에 머무는 일은 창조적 에너지와 편안한 침을 동시에 누리는 소중한 기회다. 물론 다른 아티스트의 객실 또한 서로 다른 감각으로 고객의 감성을 두드린다. 이처럼 예술적 영감을 가득 품은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의 객실은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여주 작가와 협업한 ‘아티스트 스위트’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 스위트’

#ART

예술적 감성이 깃든 객실



빛에 따라 다채롭게 변모하는 ‘트와일라잇 존’



4층에 위치한 타이 레스토랑 ‘룽침’



1층에서 3층까지 스트리트 감성을 더하는 ‘웍스아웃’



#GLOBAL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공간

지하 1층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아라리오 갤러리’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이 위치한 지역은 미술, 전시가 활성화된 지역이었습니다. ‘아라리오 갤러리’는 가장 참신한 작업, 실험적인 전시의 발원지였던 이 지역의 실험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진정성 있고 정체성이 확실하며 실험적인 작가들을 선정,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아라리오 갤러리 강소정 팀장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로비 공간과 예술적 영감으로 가득한 객실을 즐겼다면,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이 품은 다양한 콘텐츠를 취향에 따라 선별해 만끽하며 나만의 감성을 완성하는 일만 남았다.

뷔페 대신 입점한 타이 레스토랑 ‘룽침’에서 오감을 자극하는 식사를 즐겨도 좋고, 15층에 위치한 루프탑 바&라운지 ‘사이드 노트 클럽’에서 월드클래스 바텐더들이 직접 만든 칵테일을 누릴 수도 있다. 지하 1층에 자리한 ‘아라리오 갤러리’를 찾아 동시대 젊은 작가들의 실험 정신을 느껴 보거나, 1~3층에 입점한 스트리트 편집숍 ‘웍스아웃’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칼하트, 브릭스톤, 닉슨 등 유명 스트리트 브랜드의 색다른 아이템을 구경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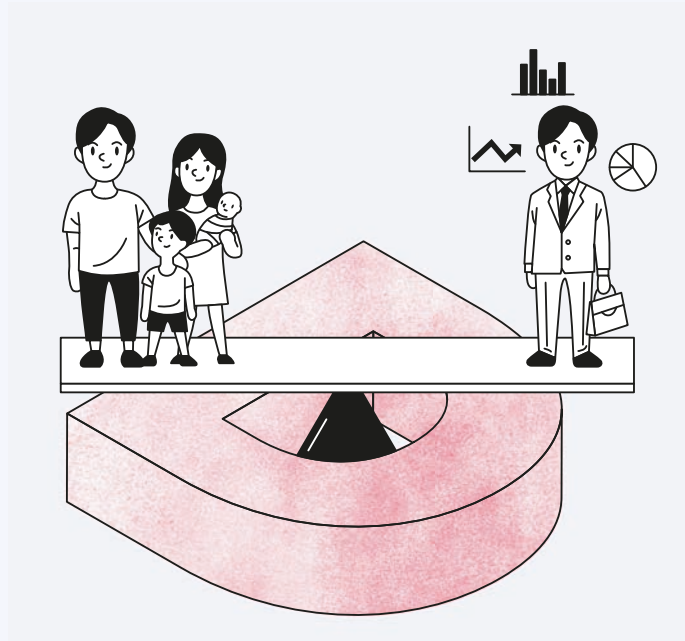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에서는 모든 삶의 방식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숙박을 위한 공간이라는 기존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플랫폼,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의 핫 플레이스가 될 이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 창조적인 여름휴가를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전화 02-330-7700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30
홈페이지 rysehotel.com

몰입의 힘,

딥 워크 Deep Work



“주 52시간 근무와 워라밸 시대,
장시간 연장 근무하던 문화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가치 지향적 근로 문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래 일하지 말고 집중해서 일하라

2018년 7월 2일 월요일, 약간의 우려와 기대 속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아침밥 먹고 나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 유치원 하원을 시킬 수 있게 됐어요”, “오전 시간을 활용해 요가를 시작해 보려고요!” 뉴스는 근로 시간 단축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직장인들의 바람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더 이상 ‘칼퇴’가 꿈이 아닌, 당연한 일상이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일까? 물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며,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워라밸’ Work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소망해 온 현대 직장인들이 이 작은 변화를 희망찬 첫걸음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사실 근로 시간 단축이라는 이슈 안에는 커다란 과제가 전제되어 있다. 바로 습관적으로 장시간 연장 근무하던 문화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가치 지향적 근로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이제 모든 직장인은 단

근로 시간 단축이라는 사회 변화와 함께 오래 일하는 대신 몰입해서 일하자는 제안, 딥 워크(Deep Work)가 주목받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회,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전문가 사회의 직장인에게 몰입과 집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칼퇴’를 일상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 딥 워크는 어떤 기술일까? 아주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딥 워크를 실천하고 있을까?

글 유재원 일러스트 민지홍

“SNS, 이메일, 전화 등이 산만함을 조장하는 시대,
몰입 능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시간에 몰입해서 일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자연히 워킹 타임 내에 업무를 집중도 있게 끝마치는 것이 개인 역량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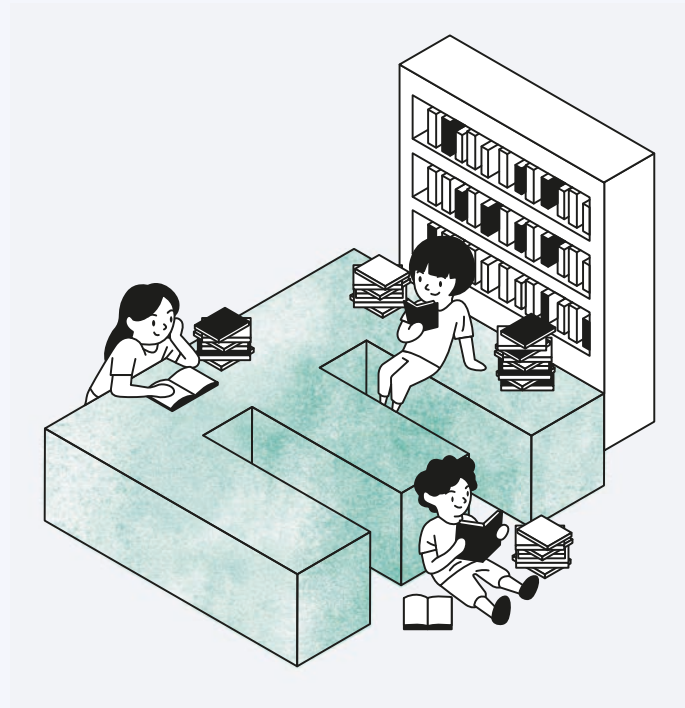
‘오래 일하지 말고 집중해서 일하라’는 제안, ‘딥 워크(Deep Work)’는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교수이자 학습 전문가 칼 뉴포트 Cal Newport가 제시한 개념이다. 본래 블로그에 연재하던 학습론이었으나, 신경 과학과 심리학에 바탕을 둔 체계적 분석과 실용적 조언으로 인기를 끌었고, 책으로 출판되어 세계 독자들을 만나기에 이르렀다.

칼 뉴포트는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습득해야 할 기술로 학습 능력을 꼽는다. 인간은 기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습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고도의 학습을 위해서 몰입과 집중은 필수이며, 그 몰입과 집중의 정점이 곧 딥 워크다.

대한민국 직장인, 딥 워크가 필요한 이유

현재 우리의 업무 환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딥 워크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SNS, 이메일,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 등 24시간 온라인 상태나 다름없는 근무 환경은 현대인의 몰입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이런 상황에서 야근 없이, 제시간에 몰입해서 일을 끝마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OECD 국가들 중 가장 오랜 시간 일하지만 업무 생산성은 늘 최하위에 머무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딥 워크를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

매번 사회적 화두를 세심하게 고려해 사내 캠페인에 반영해 온 아주는 2018년 기업문화 행동변화캠페인의 주제로 ‘딥 워크’를 선정했다. 아주인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최대 성과를 도출한다는 목적하에 매 분기 상세한 테마를 정해 실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지난 1분기에는 ‘업무 몰입’을 테마로 ‘딥 워크’라는 개념을 전사에 알렸고, 2분기에는 ‘가정의 달’과 ‘워라밸’을 테마로 일뿐 아니라 개인의 가정생활, 취미, 학습 등 행복 추구를 응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몰입을 통해
학습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캠페인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지만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은 사내 메신저에 도입한 집중 근무 상태 표시였다.

“아지트 메신저에 집중 근무 표시가 생긴 것이 신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근무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메신저 상태를 전환할 때 스스로에게 “집중하자!”라고 말하며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메신저에 빨간색 불을 밝히고 근무하는 동료들을 보며, 연락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몰입을 응원하고 자신 또한 집중 근무를 하고 빨리 퇴근하자고 마음을 잡을 수 있었다는 아주인이 많았다. 이와 같은 시도는 몰입하는 기업 문화에 대해 다 함께 생각해 보는 시작점으로 작용했다.

“기업문화 행동변화캠페인의 일환으로 업무 몰입에 대해 다루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딥 워크의 개념과 방법, 회의 시간, 집중 근무를 위한 환경 등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러한 생각이 더 적극적으로 공유되고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주인들은 몰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각자 어떤 방식으로 몰입을 실천하고 있을까?



“어떤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가 시대, 한 분야를 깊이 있게 섭렵하기 위해서는
몰입과 집중이 필수입니다.”

아주인들만의 딥 워크 실천기

「아주좋은날」 편집팀은 지난 반년간의 캠페인을 통해 아주에 생겨난 변화를 포착하고, 아주인들이 실천해 온 딥 워크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아주 전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2018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119명의 아주인이 설문에 참여했다.

연간 캠페인의 결과 대부분의 아주인(83.2%)이 딥 워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업무 몰입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는 언제일까? 68.1%의 아주인이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시간대보다 출근 직후부터 점심시간 이전까지의 오전 시간대에 집중이 더 잘된다고 응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아주인들 스스로 생각하는 업무 몰입 지수였다. 27.7%가 80점, 23.5%가 90점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아주인들 스스로 자신의 업무 몰입도에 뚜렷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주인들의 딥 워크 실천 비법이 궁금해지는 이유다.



“메신저를 집중 근무 상태(레드)로 표시하고
휴대폰은 잠시 서랍에 넣어 둡니다. 가끔은 귀마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 차단형

딥 워크를 실천하는 아주인의 네 가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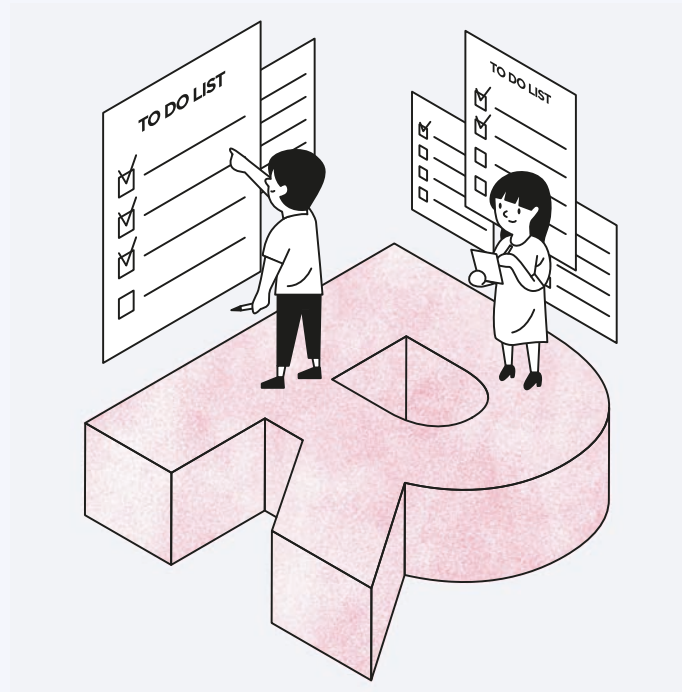
아주인들이 딥 워크를 실천하는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차단형은 업무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차단한 채 몰입도를 끌어 올리는 유형이다. 모든 메신저의 알림을 최대한 다 꺼 놓고, 전화선을 뽑고, 휴대폰 역시 무음이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두거나 아예 서랍에 넣어 둔다고 답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헤드셋을 착용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회의 등 협업 일정은 미리 파악하고, 상사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자신만의 업무 몰입 시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둘째, 감성형은 자신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업무 분위기를 조성한 후 일을 시작하는 유형이다. 이는 마인드 컨트롤 작업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잠시 명상을 하며 복잡한 마음을 환기한다는 감성형 아주인들은 자신의 심적 안정으로부터 비롯되는 집중력을 흐트러짐 없이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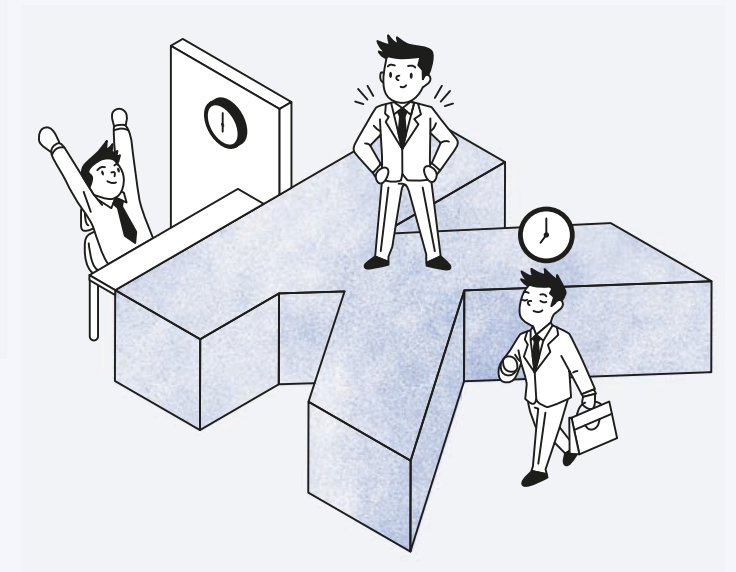
“출근하자마자 일에 치이기보다 일하기 전 자신에게
말을 걸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집중력을 끌어 올리기도 합니다.”

— 감성형



“오전에 출근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업무 노트를
작성합니다. 그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실수도 줄고
업무 집중도도 높아집니다.”

— 계획형



“일찍 수면을 취해서 아침에 상쾌하게 출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업무 중간중간 간단한 스트레칭과
짧은 휴식으로 피로감을 덜기도 합니다.”

— 바른생활형

셋째, 계획형은 출근 후 곧바로 To Do List를 작성하는 유형이다. 가장 먼저 주어진 업무의 목표를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설정해 처리해야 할 순서대로 업무를 정리, 그때그때 진행 과정을 체크하며 일한다. 이처럼 체계적이면서도 목표 지향적으로 일하는 계획형 아주인들은 각각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어 관리하고, 매일 퇴근하기 전 자신의 업무 성과를 검토하며 스스로 동기를 생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넷째, 바른생활형은 신체 컨디션과 업무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일찍 퇴근해서 적정한 휴식과 수면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아침에 상쾌하게 출근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이외에도 업무 중간중간 짧은 티타임이나 바람 쐬기, 간단한 스트레칭 등을 통해 휴식을 취하며 지치지 않게 컨디션을 유지해 나간다고 답했다. 이처럼 아주인들은 각각의 업무 스타일에 맞게 딥

워크를 실천하고 있었다. 이는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계획을 명확히 하며, SNS를 차단하고, 일과를 마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는 칼 뉴포트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다수의 응답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몰입을 실천해 본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엿보였다.

“딥 워크는 이해와 소통,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눈치를 보지 않고 업무를 조율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개개인의 능력이 향상되고, 그 능력이 곧 회사의 성과로 돌아가니까요.”

딥 워크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한 아주인의 응답이다. 딥 워크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개인의 만족감, 일의 보람을 극대화하기 위한 긍정적 기술이다. 개인의 삶과 기업의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오늘도 메신저에 빨간 불을 밝힌 채 각자의 업무에 몰입하는 아주인들이 이해와 소통, 신뢰의 관계 속에서 딥 워크라는 기업 문화를 완성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

AJU NEWS

Volume 51 아주 뉴스

「아주좋은날」 2018 SUMMER

www.aju.co.kr

【아주산업】건자재 사업의 세 번째 해외 진출, 미얀마 PHC 파일 생산 공장 준공



아주산업이 2017년 1월 아주미얀마 현지법인을 설립한 지 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2018년 1월 2일 PHC 파일 생산 공장 준공식을 연 것. 이는 2017년 3월 29일 미얀마 시장을 동남아의 건자재 공급 기지로 완성하겠다는 비전으로 착공해 약 10개월간 노력한 끝에 얻은 결과다. 준공식 이후 아주산업은 국내 콘크리트 분야에서 쌓아 온 생산력과 기술력을 앞세워 한 달여의 시범운영 역시 안정적으로 마쳤다. 부지면적 5만 9,822㎡에 연간 20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아주미얀마 PHC 파일 생산 공장은 향후 태국, 라오스 등 동남아 주변 국가를 아우르는 PHC 파일 공급 기지로 그 입지를 확장해 갈 전망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아주산업 박상일 대표는 벅찬 마음으로 소감을 밝혔다.

“아주산업은 지난 50여 년간 콘크리트 분야에서 차별화된 생산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발휘하여 국내 건자재 전문기업으로서의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이제 아주산업만의 역량이 해외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파일사업본부 박재용 본부장, 기획본부 이경언 본부장 등 아주산업 관계자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이상화 대사, 한인협회 전승호 회장, 미얀마 경제특구 개발회사인 MJTD의 아웅 소 타Aung Soe Tha 사장, 현지 건설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의 귀빈은 박수를 보냈다.

아주미얀마 PHC 파일 공장은 2008년 아주베트남 PHC 파일 공장, 2011년 캄보디아 전신주 공장에 이은 아주산업의 세 번째 해외 생산 기지다. 대형 선박의 출입이 용이한 항만 환경을 기반으로 미얀마 수출입의 85%를 담당하고 있는 뽈라와Thilawa 경제특구 지역에 입주한 생산 공장은 향후 PHC 파일 생산뿐 아니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제품 생산, 파일 시공 등 다각도로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아주산업은 이러한 지리적 이점, 아주산업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 주민과 협력해 건자재 사업의 글로벌화를 이뤄 가기 위한 최선의 행보를 보여 줄 것이다.

【아주IB투자】꾸준한 역량, 아주 좋은 Life Science 3.0 벤처펀드 결성총회

전문 벤처캐피탈사인 아주IB투자는 2018년 6월 14일 주요 투자자들과 함께 ‘아주 좋은 Life Science 3.0 벤처펀드’ 결성총회를 개최했다. 아주 좋은 Life Science 3.0 벤처펀드는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에 부합하는 국내외 유망 Life Science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바이오 분야 전용 펀드다. 이전 Life Science 1호, 2호 펀드의 성공적인 투자 실적을 바탕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펀딩이 시작되었다. 이는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성장 가능성, 국내 우수 투자기관들의 지지와 공감, 아주IB투자가 갖춘 투자 노하우라는 삼박자가 어우러진 결과물로 업계와 고객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아주 좋은 Life Science 3.0 벤처펀드가 긍정적 평가를 받는 이유는 첫째 벤처펀드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라는 점, 둘째 전액을 국민연금 및 모태펀드 등 앵커 출자자 없이 일반 기업, 금융사 등 민간 출자자들로 LP를 구성했다는 점, 셋째 정부 예산에 기반한 VC펀드 결성의 형태와 차별화되었기에 업계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라는 점에 있다.



이에 아주IB투자 김지원 대표이사는 “이번 펀드결성은 지난 두 번의 미주 전용 펀드의 성공적인 운용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아주IB투자의 투자 역량에 대한 기대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이는 곧 아주IB투자의 코스닥 상장 추진에 긍정적 신호로 연결될 것입니다. 더불어 펀드 규모 확대와 투자 공급 증대, 안정적인 수익 창출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인정받고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가치를 제

공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라는 말로 향후 성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밝은 전망과 함께 출발한 아주 좋은 Life Science 3.0 벤처펀드에 힘입어 아주IB투자의 전체 운용자산(AUM) 규모는 약 1조 3,7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관리 보수 수입 역시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 곡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주복지재단】아주 좋은 꿈터,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2017년 8월 지역의 소외 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교육 허브를 꿈꾸며 완성한 ‘아주 좋은 꿈터’가 국제 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통해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18’에서 건축 부문 본상을 수상한 것. 1953년부터 시행 중인 iF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이 수상이 값진 이유는 상 자체가 갖는 권위 보다는 아주그룹故 문태식 창업주의 생각을 소나무 마감재와 목재 가구를 사용한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최적의 교육 문화 향유 공간으로 재구성한 깊은 의미를 심사 과정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창업주의 뜻을 이어 가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한 아주인들의 의지와 공간 구성을 설계한 재일 한국인 2세 이타미 준의 장녀이자 건축가인 유이화 대표의 노고가 빛을 발한 셈이다.

아주복지재단 관계자는 “아주 좋은 꿈터를 방문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 이번의 결실을 발판 삼아 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앞으로도 아주 좋은 꿈터는 동대문구 지역 주민, 아동·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일을 찾아 실행하는 든든한 그루터기가 되겠다는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주오토리움】 안양 서비스센터 ‘2018 볼보 서비스 기술 경진 대회’ 수상



아주오토리움 안양 서비스센터가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2018 볼보 서비스 기술 경진대회Volvo International Service Training Award(이하 VISTA)’ 한국 대회에서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며 우승의 영예를 안은 것은 물론, 2018년 6월 스웨덴 제네바 본사에서 열린 세계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며 아시아 국가 중 2위, 종합 순위 14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동의 주역인 이조원·임윤진·주인철 매니저팀(일반 정비 부문)의 활약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안양 서비스센터는 한 명 한 명의 고객에게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최고의 만족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일명 ‘퀵숍’이라 부르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일반 정비 분야 최고의 인재들을 영입해 왔다.

이번 성과는 이러한 안양 서비스센터의 소신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팀의 리

더인 이조원 매니저는 “반드시 한 번쯤은 다녀올 만한 대회라고 봅니다. 2년 뒤에 열리는 다음 VISTA에 다시 도전할 계획입니다. 준비요? 다음 대회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는 현장에서 고객들의 차량을 성실하게 정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다시 현장에 돌아가 고객과의 만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비스 마인드를 강조하는 것으로 소감을 대신한 안양 서비스센터, 그들의 기량에 박수를 보낸다.



【아주】 학습하는 아주, 자기주도적 학습조직 운영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소통하는 사내 환경을 강조해 온 아주는 2018년 6월 말까지 자발적인 사내 학습조직을 운영했다. 이는 2017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원 개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문화를 사내 문화로 정착시킴으로써 조직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8년의 학습조직은 2017년 대비 6개 계열사, 3개 조직으로 확대되었으며 참여 직원 역시 20여 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학습 주제를 넥스트 이머징마켓으로 급부상 중인 말레이시아, 에티오피아에 대한 ‘글로벌 지역 탐구’,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산업 동향 등을 알아보는 ‘산업트렌드 학습’으로 정하고 참여 직원들과 함께 다각도로 조사·연구했다. 각 학습조직은



7월, 학습 결과를 전사에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주는 앞으로도 사내 학습조직을 3개월 과정으로, 연 2회씩 진행하며 자발적 학습과 토

론을 통해 만들어 낸 학습조직의 성과물을 해외 시장 및 신규 사업 진출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개인의 학습을 통해 조직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아주의 내일을 기대해 본다.

【아주복지재단】 협력하는 꿈터, 고려대 협력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설립 초기부터 지역 아동들의 꿈 찾기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균형 발전을 고민해 온 ‘아주 좋은 꿈터’가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과의 협업을 통해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이는 고려대학교 재학생들과 아주 좋은 꿈터 아동들을 멘토·멘티로 1:1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나 집단 교육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특별하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

대학생 멘토링은 학습 멘토링과 체육 멘토링 두 축으로 구성된다. 학습 멘토링은 주요 교과목 개별학습 지원으로 학업의 흥미를 높이고, 체육 멘토링은 신체 활동을 통해 지구력, 협동심, 이타심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멘토가 된 23명의 대학생 봉사단은 아주 좋은 꿈터에 주 1~2회 방문해 꿈 찾기 프로그램 참여 아동 12명과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학습 멘토링의 경우 학습을 함께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전혀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체육 멘토링 시간에는 활동을 더 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아이들이 많아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혼자 지내는 시간이 잦았던 꿈터 아이



들은 대학생 멘토들을 만나 즐겁고 유익한 경험을 이어 가고 있다. 이에 아주 좋은 꿈터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정비해 향후 더욱 다양한 활동으로 멘토·멘티를 연결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2018년 2학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즐거운 프로그램을 하나씩 공개하며 멘토·멘티들은 물론 아주 좋은 꿈터 역시 즐거운 번신을 이뤄 나갈 예정이다.

【아주】 일곱 번째 봄, ‘2018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후원 메세나 활동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앞장서 온 아주는 올해에도 ‘2018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Seoul Spring Festival of Chamber Music’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 행사는 ‘음악을 통한 우정’을 모토로 2006년 처음 시작을 알렸으며, 아주와는 2012년부터 인연을 맺어 올해로 7년째 공식 후원사로 함께하고 있다. 지금은 어엿한 국제 클래식 음악 축제 중 하나로 자리잡은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매년 봄마다 서울을 클래식으로 물들이고 있다.

이처럼 아주의 대표적 메세나로 자리매김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올해 테마는 ‘카르트 블랑슈Carte Blanche(전권위임)’로 예술감독이 아닌 연주자가 직접 원하는 곡을 선택해

관객을 맞이했다. 행사는 5월 1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의 주요 공연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조영창, 양성원, 칼리히슈타인Kalichstein, 로빈슨 트리오Robinson Trio, 이경선, 김현아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가 참가했다. 아주가 후원한 공연은 5월 24일 개최되어 서울을 온통 환한 봄으로 물들였다.

아주는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와의 일곱 번째 만남으로 또 한 번 클래식 하모니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문화를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메세나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라는 말로,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문화·예술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 갈 것임을 약속했다.



아주 좋은 여름,
한 편의 시를 필사하며 휴식을 취해 보세요

여유
Leisure

그게 무슨 인생이겠는가?
근심 가득 차서
멈추어 서 바라볼 시간도 없다면

양이나 젖소처럼 나뭇가지 아래 서서
물끄러미 바라볼 시간도 없다면

숲속을 지나면서 다람쥐들이 풀밭에
도토리 숨기는 걸 볼 시간도 없다면

한낮의 햇빛 아래 반짝이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빛 같은 시냇물을
바라볼 시간도 없다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돌아서
그녀의 춤추는 발의 자태를
바라볼 시간도 없다면

눈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풍요롭게 퍼지는
그 미소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

딱한 인생이리라,
근심만 가득 차 멈추어 서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윌리엄 헨리 데이비즈
W. H. Davies

「아주좋은날」 2018 여름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소감을 ajupr@aju.co.kr로 보내 주세요. 소정의 상품과
함께 여러분의 아주 좋은 여름날을 응원하겠습니다.



1. 독자 여러분의 ‘복캉스’를 응원
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는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새 시대를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더운 날들을 감성적인 글로 채우고 싶으신 독자 여러분의 ‘복캉스’를 응원합니다. ajupr@aju.co.kr로 독자 후기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네 분을 추천해 「아주좋은날」과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애플트리테일즈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2. 독자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선물합니다

길어진 한낮, 카페에서의 한적한 여유 한 잔이 필요하신 독자 여러분께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선물합니다. 독자 후기 이메일을 보내 주신 독자분들 중 네 분을 추천해 「아주좋은날」을 보며 시원한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선물해 드립니다.



3. 독자 여러분께 특별한 휴식처, ‘케렌시아’를 선사합니다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과 뒤척임을 즐거운 상상과 꿈으로 뒤바꾸고 싶으신 독자 여러분께 ‘케렌시아’를 선사합니다. 케렌시아는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처를 뜻하는 말인데요. 독자 후기 이메일을 보내 주신 독자분들 중 네 분을 추천해 「아주좋은날」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즐기시라는 의미를 담아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